

2021 인문학 도서 집필위원 공모 당선작

8인의 두드림



2021 인문학 도서 집필위원 공모 당선작

8인의 두드림

진영중앙초등학교 권성희	6
용호초등학교 권혜림	18
대성초등학교 모회정	28
통영중앙중학교 서연숙	36
호암초등학교 성선희	44
월성초등학교 이민지	58
창원과학고 최선우	68
활천중학교 허채란	74

2021 인문학 도서 집필위원 공모 당선작

8인의 두드림

초등 교실 속 명화 이야기

진영중앙초등학교 권성희



초등 교실 속 명화 이야기

-가세 박사의 초상화-

진영중앙초등학교 권성희



-테오에게-

닥터 가세는 어딘지 아파 보이고 멍해 보인다. 그는 나이가 많은데, 몇 년 전에 아내를 잃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의사인데다 일과 신념이 그를 잘 지탱해주는 것 같다. 우린 쉽게 친해졌다. 요즈음은 그의 초상화를 그리고 있다. 아주 환한 금발에 하얀색 모자를 쓰고 환한 살구색의 손을 빨간 탁자에 기대고 있는 모습이다. 그는 파란색 연미복을 입었는데 바탕도 코발트블루다. 탁자 위에는 노란색 책 한 권과 보라색 디기탈리스꽃이 놓여 있다. 닥터 가세는 이 초상화를 아주 좋아해서 가능하면 똑같은 걸 하나 더 그려서 자기에게 줄 수 없겠느냐고 했다. 나도 그럴 생각이다.

-1890년 6월 4일, 빈센트 반 고흐-

3층 내 자리에서 보이는 창문 밖 모습은 붉은색 우유 팩 같은 주택 단지들이 옹기종기 붙어 있는 게 먼저 눈에 들어온다. 이 주택 단지를 지나면 창원에서 김해로 넘어오는 초입 도로가 보인다. 제법 큰 도로라 지나가는 자동차에서 반사되는 햇빛이 분주하게 눈가를 수 놓았다가 사라진다. 도로 건너에 있는 빛바랜 포장 상자 모양의 상가 건물들 뒤로 금병산이 보인다. 풍성한 초록빛 잎을 가진 나무들로 가득한 산 정상과는 달리, 산 중턱에 자리를 잡고 있는 과수원에는 겨울을 견뎌낸 단감 나무들이 회색빛 앙상한 나뭇가지로 조용히 가을의 풍성한 주황빛을 기다리고 있다. 열어놓은 창문으로 초봄 햇살의 따뜻함과 불어오는 바람에 여전히 남아있는 늦겨울의 차가움이 동시에 느껴진다. 봄이 가득한 창문 밖 모습에 빠져든다.

“선생님, 뭐 봐요?”

네모난 창문 속 봄 풍경 속에서 허둥지둥 다시 교실로 되돌아온다. 3

월 초 초등학교 교실. 강아지 같은 눈으로 나를 쳐다보는 아이들의 눈에는 기대감과 궁금증이 가득하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3월은 나도 아이들처럼 기대감과 궁금증을 가지고 시작한다. 그리고 아이들과 1년 동안 어떻게 하면 즐겁고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까 행복한 고민을 하는 3월이다.

하지만, 이런 말랑말랑한 감정들은 담뱃 느끼기도 전에 사라지기 일쑤다. 매년 언제나 가장 분주한 한 달인 3월. 아이들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면서 생활 지도도 단디 해야 하고, 일 년 동안 할 교육과정을 준비하고 맡은 학교 업무를 파악하고 계획해야 한다. 이리저리 분주한 현실에 치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새 딱딱한 얼굴을 하고 있다.

특히, 나를 더 분주하게 하게 하는 것은 가정통신문이다. 3월 한 달은 가정으로 보내야 하는 안내장이 유난히 많은 달이다. 담임교사로서 새롭게 반 편성된 우리 아이들에 대해 알아야 할 내용을 받거나, 반대로 우리 아이들이 올해 학교생활을 할 때 알아야 할 기본적인 내용도 알려주어야 한다. 이것뿐만 아니라, 각 업무별로 가정에서 꼭 받아야 할 여러 가지 정보들과 학교에서 일 년 동안 보관해야 할 안내장 등이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하루에 나가는 안내장이 5~6장인 경우가 부지기수다.

나가는 안내장이 많으니 당연하게 받아야 하는 안내장도 많다. 똑 부러진 선생님들은 한글 문서로 가정으로부터 다시 받아야 하는 안내장을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관리하신다. 볼 때마다 감탄하지만, 웬지 나는 그게 쉽게 되지 않는다. 근거 없이 여유로운 마음을 가진 나는, 매년 한 두 개의 안내장을 놓치고 급하게 수집하고 통계 내려고 허둥지둥한다. 안 고쳐지는 게으른 습관이다.

“내일까지라고요!”

이런 나를 잘 아는 마음씨 좋은 학년 부장님의 챙김을 아침부터 받는

다. 매년 3월이면 피는 진달래꽃들처럼, 올해에도 나는 당혹감에 분홍색이 얼굴에 피어난다.

부리나케 오늘 아침까지 받은 회신용 기초조사서를 세어 본다. 역시나 빈다. 하지만, 다행히 3장뿐이어서 오늘 중으로 가능하다. 누가 제출 안 했는지, 우리 반 아이들 번호순으로 정리된 안내장을 살펴본다. 이번에도 연훈이는 회신용 안내장을 안 들고 왔다.

연훈이는 교과서도 자주 안 챙겨온다. 아직 3학년인 우리 아이들은 혼자서 야무지게 챙길 수 있는 소수의 여자아이를 제외하고는 가정에서 엄마, 아빠의 손길이 여전히 필요한 나이이다. 하지만, 연훈이는 가정에서 챙기는 것 같지만 한, 두 가지씩은 계속 놓치는 느낌이 드는 아이다.

아이를 불러 내일까지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해서 말해주고, 알림장에도 적어주면 되겠다는 생각이 처음 들었다. 연훈이를 바라본다. 조금 전 나처럼, 멍하니 자리에 앉아 잠시 다른 세계로 떠나 있었다. 경험적으로 이렇게 학기 초 회신이 자주 늦는 경우는, 일 년 내내 기한에 맞춰서 회신을 가져오는 경우가 드물다. 조금 귀찮긴 하지만, 아직 수업 시작하기에는 시간이 남아있으니 내가 작성하기로 한다. 당장 필요한 내용은 아이의 부모님 성함과 주소 등 간단한 내용이었다. 내일까지 기다리다가 안 가져와 속 태우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 방법이 내 속도 편하고, 일 처리도 빠르다.

“연훈아, 잠깐만 선생님한테 와볼래?” 느릿느릿 걸어 나오는 연훈이.

3학년 치고는 자그마한 체구에 동글동글한 얼굴. 눈썹 위로 일자로 자른 바가지 머리는 평행선 같다. 이 평행선 같은 머리 모양에다 콧방울만 볼록 튀어나온 작은 코는 눈을 더 크고 동그랗게 보이게 만들었다. 첫인상으로 본다면 귀여운 동그라미다. 소극적인 성격에, 행동이나 말을 할 때 크게 눈에 띄지 않는다. 아직은 작고 색깔이 불분명하게 보이

는 귀여운 동그라미 같은 아이.

“저번 주에 나눠줬던 이 안내장, 이거 내일까지 꼭 가져와야 해”

아이에게 나눠줬던 안내장을 보여주면서, 내일까지 가져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그리고, 연훈아. 선생님이 알아야 할 내용이 있어서 불렀어.”

“네.” 연훈이는 동그란 입에서 작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을 했다.

“연훈이가 지금 살고 있는 집 주소 좀 얘기해 줄래?”

커피 한 모금 마실 정도의 시간이 흐른다. 재판 위에 올린 손가락들은 출발선에서 잔뜩 긴장한 상태로 자세를 취하고 있는 단거리 선수들처럼 준비되어 있다.

“잘 모르겠는데요.”

맥이 탁 풀린다. 누군가 부정 출발을 해서 다시 출발선에 서야 하는 단거리 선수들처럼, 키보드에 올려져 있는 손가락들이 허탈하게 무릎 위로 올라간다.

머릿속으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됐지만, 가슴속에선 답답함과 작은 불꽃이 일렁거리는 게 느껴진다. 하지만, 나는 초등 3학년 담임교사다. 이 정도에 노여워하거나 슬퍼해서도 안 되고, 표현해서도 안 된다. 일상다반사다.

“그럼, 아빠 이름은 뭐야?”

“.....”

연훈이와 눈이 마주치고, 내 눈을 중심으로 한 얼굴 전체가 무언의 압력을 가한다.

“몰라요.” 연훈이가 말한다.

순간 아이의 대답에 짜증이 났다. 주소를 모른다는 아이의 대답부터

시작된 답답함이 짜증스러움으로 커져갔다. 그리고 이 순간적인 짜증으로 많은 것들을 놓치고 말았다. 왜 이 순간 나는 못 느꼈던 걸까? 왜 이 아이의 얼굴을 조금 더 살펴보지 않았던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 라면, 평소 연훈이가 내뱉는 동그라한 말 덩어리가 아닌, 어느 구석이 찌그러져 있고 끊어져 있는 말이었다는 걸 눈치챌 수 있었을 것이다.

세심하지 못했던 나는 거칠고 부주의한 다음 질문을 입 밖으로 하고 말았다.

“왜 아빠 이름을 몰라?”

“.....”

“아빠랑 같이 살지 않아요”

아이의 말을 듣는 순간, 마음속 어딘가에 있는 선 하나가 툭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아랫입술을 살짝 깨물고 입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아랫입술을 혀로 핥는다. 당황하거나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나오는 습관이다. 입이 만들어낸 당혹감은 머릿속으로 가슴속으로 이어져 가고 있었다.

머릿속에서는 ‘연훈이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하지?’ ‘사과해야 하나?’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넘어가야 하나?’ 가슴보다 더 반응이 빨랐던 머리는, 약삭빠르게 이 순간을 넘어가려고 시도하고 있었다.

“아~그렇구나. 미안해, 선생님이 몰랐어.”

“그럼, 내일까지 기초 조사서 꼭 가져와야 한다. 자리로 들어가요.”

가능한 한 빨리 나는 아이를 자리로 돌려보낸다. 마치 실수로 유리컵을 깨트린 아이가, 야단맞는 상황을 피하려고 깨져버린 유리컵의 흔적들을 재빨리 쓸어서 버리듯이 나는 그 아이를 얼른 돌려보냈다. 그동안 연훈이의 어머니와 오후 시간에 전화 통화가 잘되지 않았던 이유가 가정 생계를 위해 직장에 나갔기 때문이라는 것과 바쁜 생활 속에서 연훈

이를 챙기는 데 한계가 있었을 거라는 것 등, 그동안 의아하게 생각했던 일들이 이해되기 시작했다.

자리로 돌아가는 아이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머리보다 조금 늦게 가슴에 도착한 복잡한 감정들이 반응한다.

‘미안함, 자책감, 걱정.’

자리에 앉아 나는 이마를 손으로 비비며 연훈이를 바라보고 있었다. 연훈이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책을 준비하고, 옆자리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내가 왜 미안해하고 죄책감과 같은 감정을 느끼는지 그리고 느껴야만 하는지 연훈이는 알고 있을까? 평상시와 다를 바 없이 행동하고 말하는 아이를 바라보는 게 더 미안하고 참담하다.

다시 아랫입술을 아까보다 조금 더 세게 물며, 애써 시선을 책상 위로 옮긴다. 책상 위에 있는 다양한 물건들과 종이 몇 장. 자연스럽게 눈이 가는 게 있다. ‘친구 얼굴 그리기’ 미술 시간에 활용할 수업 자료로 뽑아 놓은 그림들이다. 그중에서도 유난히 눈에 들어오는 게 하나 있다. 빈센트 반 고흐가 그린 가세 박사의 초상화다.

‘가세 박사의 초상화’

고갱과 공동생활을 하던 고흐가 급격히 정신상태가 불안해져 자신의 귀를 잘라내는 그 유명한 사건이 일어난 후, 고흐는 다음 해에 스스로 ‘생 레미 요양원’에 들어간다. 다행히 일 년간의 요양 후 상태가 좋아진 고흐는 파리 교외의 작은 마을 ‘오베르 쉬르 우아즈’로 거처를 옮겼고, 그곳에서 동생 테오의 소개로 정신과 의사 ‘폴 가세’를 만나게 된다. 바로 이 그림의 모델이다.

‘폴 가세’는 의사이면서도 미술 애호가였으며, 직접 그림을 그리는 화

가이기도 했다. 고흐는 그를 마음에 들어 했다고 한다. 고흐는 폴 가세 집 근처에 거처를 정하고 그와 교분을 나눴으며, 고흐는 가세의 초상화를 그렸다. 하지만 이 초상화는 고흐의 초상화 가운데 최후의 작품이 되었다.

물결치는 듯한 푸른 색조의 배경, 격렬한 붓 터치, 희망과 절망이 함께 있는 듯한 노란색과 청색의 대비, 침울하면서도 슬픔이 느껴지는 그림이다. 이 그림을 본 동생 테오가 ‘형님과 닮았다’라는 말을 한 것처럼, 이 그림은 정신과 의사였던 ‘폴 가세’가 아닌 환자였던 ‘반 고흐’를 연상시킨다.

지금의 내 얼굴을 누군가 사진을 찍어서 보여준다면, 고흐가 그린 ‘폴 가세’ 박사의 그림과 비슷해 보이리라. 침울하고 마음이 아픈 나. 그림 속에 보이는 꽃은 ‘디기탈리스’라는 꽃으로, 그 당시 심장의 통증을 고치는 데 사용되었다고 한다. 이 보라색 꽃이 마음의 아픔까지 고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본다. 그리고 내가 아닌 연훈이에게 미안하다며, 선생님이 세심하지 못해서 마음에 상처를 주었다며 사과를 하고 건네주고 싶어졌다.

우리 반 아이들이 즐겁고 의미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지만, 오늘과 같이 실수하고 잘 안되는 날이면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로 하루를 보낸다. 하루가 지나면서 괜찮아지면 다행이지만, 이 부정적인 감정들과 느낌들이 며칠 더 진행될 수도 있다. 계속해서 죄책감과 자괴감이 스스로를 조금씩 갉아먹게 된다.

침울하게 아침 첫 수업을 시작한다. 아무래도 신도 안 나고 힘도 없다. 연훈이 쪽으로 시선이 잘 안 간다. 내 표정이 딱딱하니 아이들도

슬금슬금 내 눈치를 살피기 시작한다. 수업이 무겁고 진행이 잘 안 된다. 꾸역꾸역 수학 수업을 한 후 '수학익힘책'에서 풀어야 할 페이지를 아이들에게 안내하고 자리에 다시 털썩 앉아버렸다. 첫 시간이지만 벌써 기진맥진이다. 힘든 마음이 몸도 힘들게 한다. 책상 위에 여전히 놓여 있는 '폴 가세 박사 초상화'를 다시 한번 쳐다보다, 우연히 그 밑에 적어 놓은 고희가 동생인 테오에게 쓴 편지 문구를 읽는다.

‘우리는 되도록 많은 것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해. 진짜 힘은 바로 거기서 나오기 때문이란단다.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더 행복할 뿐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있어. 그 사람 역시 가끔은 흔들리고, 의심도 하지만, 그럼에도 자신의 마음속에 신성한 불꽃을 품고 살아갈 수 있지.’

평생 단 하나의 그림도 팔지 못한 무명의 화가로 끝난 고희이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인생과 예술을 긍정하며 사랑하라고 한 고희의 편지가 큰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내가 아이들에게 해주었던 말들이 순간 떠올랐다.

‘누구나 실수하고 또 그 실수로 흔들릴 수 있어.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이후야, 그 실수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시도해보지 못하거나 두려움에 움츠러들지 마.’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되지.’

‘자기 자신을 칭찬도 하고 위로 좀 해줘, 내가 나를 위로 안 해주면 누가 해주겠어.’

아이들에게 해주었던 말들을 작아져 버린 나에게 조용히 되뇌어보면서 스스로를 위로해 본다. 그리고 내가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좋아하고, 아이들과 함께 있는 시간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다시 기억해본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실수를,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고 했다. 가세 박사의 얼굴을 하고 아이들과 함께 생활할 수도 없고, 아이들을 바라보기도 싫다.

수학 문제를 열심히 풀고 있는 아이들 사이를 지나, 연훈이 옆에 쪼그리고 앉았다. 이제 맞는 눈높이. 연훈이는 나를 쳐다보며 ‘왜요?’라는 말을 동그란 눈으로 대신 말한다. 나는 아이 귀에 가만히 다가가 이야기했다.

“선생님이 정말 미안해.....”

잠시 어리둥절해 하던 아이는 싱긋 웃으며, 내 귀에 대고 동그란 단어들을 말해주었다.

“괜찮아요, 선생님.”

아이가 노랗게 빛나는 것처럼 느껴졌다. 기쁨과 설렘으로 가득한 노란 고희의 해바라기꽃처럼, 나도 연훈이도 노오란 해바라기꽃이 되었다.



2021 인문학 도서 집필위원 공모 당선작

8인의 두드림

제인이 되고 싶은 다아시

용호초등학교 권혜림



제인이 되고 싶은 다아시

-제인 오스틴, 「오만과 편견」-

용호초등학교 권혜림

책을 더 많이, 깊게 읽기를 새해 목표로 삼아야겠다고 마음먹었던 작년 겨울의 어느 날 김영하 작가의 피드에 #김영하북클럽이라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한 달에 한 권씩 작가가 고른 책을 읽고, 감상이 담긴 글을 #김영하북클럽 해시태그와 함께 올리면 자동으로 가입이 완료되는 모임이라고 했다. 해시태그를 타고 다른 회원들이 남긴 글을 들여다보며 자기 생각을 반추하다가 월말에 작가가 여는 라이브 방송을 통해 최종 감상을 나누는 것이 이 북클럽의 운영방식이다. 작은 해시태그로 엮인 낯선 이들과의 촘촘한 연대감도 설렘이지만, 좋아하는 작가님으로부터 내가 알지 못했던 책들을 추천받는 재미가 무척 쏠쏠했다.

그렇게 3번의 책모임을 끝내고 다음 달의 책을 기다리고 있을 때, 작가님께서 3월의 책은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이라고 공지하셨다. 좋으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약간 김이 새는 느낌이 들었다. “오만과 편견”이라면 이미 여러 번 읽어서 알고 있는 데다가, 고전 독서 모임에서도 한 번쯤은 꼭 다루는 책이니 ‘이왕이면 좀 더 생소한 책을 선정하셨

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 때문이었다. 내가 처음 “오만과 편견”을 읽은 것은 중학생 시절이었다. 세계적인 작가가 쓴 책인 데다가, 제목에서도 철학적인 색채가 느껴져 심오한 인생 이야기를 다룬 내용이 펼쳐질 것이라고 기대하며 한 페이지씩 눈에 담았다. 그러나 ‘재산깨나 있는 독신 남자에게 아내가 꼭 필요하다’는 건 누구나 인정하는 진리이다’라는 첫 구절을 지나 결혼에 여생을 걸며 사교계로 진출하는 아가씨들, 그리고 오해로 돌고 도는 연애담이 펼쳐지자 이런 로맨틱 코미디물이 왜 세계적인 명작이자 고전이 되었는지 지적 허세로 가득 찬 사춘기 중학생의 머리로는 조금도 이해할 수 없었다. 이십 대에 접어들고 나서 결혼이 인생 최대의 과업이 될 수밖에 없었던 당시 영국의 시대적 배경을 공부하고, 섬세한 인물 묘사에 빠지며 클래식은 영원하다는 걸 느끼게 되었지만, 최첨단의 방식으로 운영되는 북클럽에서 선정된 책이기에 뻥하다는 느낌을 떨쳐낼 수 없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기에 얼른 도서관으로 달려가 책을 빌려왔다. 2021년의 내가 읽는 오만과 편견은 마냥 경쾌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인생에 대한 고찰과 지혜를 농담 속에 던져넣어 물수제비 뜨듯 툭 툭 던져내는 최고의 소설이 되어 있었다. ‘달리 즐길 만한 거리가 없는 처지라면 주어진 여건에서 얻을 것을 얻는 것이 진정한 현자일 것이다.’, ‘전 단지, 제 의견에 따라 제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행동할 작정일 뿐입니다.’와 같이 당장 내일의 내가 문밖을 나설 때 잊지 않고 꼭 챙겨가야 할 구절들이 빼곡했다. 포스트잇을 다 써버릴 만큼 엄청난 문장들이 가득한 이 책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나의 오만에 부끄러워질 때쯤 문득 교실에서 있었던 일이 떠올랐다.

처음 같은 아이들의 담임을 연임하기로 했을 때, 동료 선생님들로부터 ‘연임이 좋지만 한 선택은 아니다.’라는 조언을 들었다. 신규 티를

벗지 못했던 나는 '학급 경영을 할 때, 작년에 사용했던 자료들과 중복되지 않도록 사전 준비를 더 철저히 해야겠지만 그 정도야 내가 조금만 부지런 떨면 걱정거리가 되지 않을 거다.'라며 자신만만했다. 이미 1년을 함께 보낸 아이들이 많으므로 한 명, 한 명을 알아가는 시간이 적게 들 것이고 그 에너지를 아껴 학급 내에서 이뤄지는 다른 활동들을 알차게 꾸려나갈 수 있으니 이것만큼 좋은 일이 어디 있을까. 게다가 올해 처음 만나는 아이들도 작년 우리 반이었던 누구의 친구, 누구의 쌍둥이로 연결되니 예년보다 빨리 친해지는 기분이 들었다. 이렇게만 일 년이 흘러갔다면 정말 좋았겠지만 부끄럽게도 나는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나의 오만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같은 길이의 시간도 어른과 아이에게는 다르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 그만큼 어른의 태엽이 낡기도 했지만, 지금의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산다고 한들 필름 한 장마다 세밀한 그림을 그려 넣는 아이들의 성장과 변화는 따라갈 수 없다. 우리는 이미 완성된 그림을 조금씩 수정해나가고 있고, 아이들은 지금 막 새로운 그림을 그려나가는 중이니까. 미처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어른들을 위해 그들은 온몸으로 자신의 성장을 표현하기도 한다. '저 방학 동안 4cm나 컸어요!' 그 아이의 마음은 얼마나 더 많이 자랐을까. 이토록 하루가 다르게 자라니 학년이 올라가면 이전의 모습과 사뭇 달라지는 건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그 점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교실에 앉아있는 아이들은 작년의 내가 보았던 그 아이들의 모습과 달랐다. 늘 어딘가 모르게 붕 떠 있고 수업에 불필요한 말을 끊임없이 해댔다. 연임하면 선생님이 아이들을 알아가기 편하듯이, 아이들도 새로울 것 없는 선생님을 보고 '더 편하게만' 행동할 수 있다는 점을 체감하자 그제야 동료 선생님들께서 해주셨던 조언이 와닿았다. 작년에는 차분했던 아이까지 변한 것을

보고 배신감을 느꼈지만, 담임으로서 부정적인 감정만 뿔어대고 있기에 3월은 너무나도 짧고, 소중한 시간이다. 아이들에겐 재미를, 나에게 도움 줄 만한 활동이 무엇일까 고민한 끝에 간이 MBTI 검사를 해보기로 했다. 전문적인 성격 검사를 시행하면 가장 좋았겠지만 어떠한 지원 없이 내 사비로 충당하기에는 도저히 무리였고, 아이들도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을 딱딱하고 엄숙한 절차로 느끼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내린 결정이었다. 우리 반이 붕 뜨는 이유는 예상한 대로 외향적인 E 성향의 친구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서였다. 외부와의 교류에서 에너지를 얻는 이들에게 차분히 앉아서 사고해야 하는 수업시간은 너무나도 버겁게 느껴질 것이다. 6교시까지만 견디면 해방이 아니라 강도 높은 학원 수업이 뒤따르니 학교에서라도 짹짹이 떠들고 싶은 이 아이들의 상황이 이해되었다.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이 아이들의 기질을 허용하고 장점으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수업 계획을 짜야겠다.'라며 검사를 넘겨보고 있는데 한 아이의 평가 결과가 눈에 들어왔다. 작년에도 담임을 맡았던, 장난기가 많고 활발한 아이였다. 말수가 많은 편은 아니지만, 사춘기 문턱의 고학년 아이라면 선생님 앞에서만 말을 아끼는 일이 낯선 모습은 아니었기에 당연히 전형적인 E 성향에 속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런데 결과에 딱하니 'INTP'라고 적혀있는 게 아닌가! 혹시 계산 실수로 표기를 잘못된 걸지도 모르니 작성한 문항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지만 보면 볼수록 이 아이는 내향형 I가 맞다는 확신이 들었다. 쉬는 시간엔 친구들과 열심히 장난을 치고서 수업시간에 혼자 앉아있을 때면 지치거나 기운이 없어 보여 수업 태도가 바르지 않다고 따로 이야기한 적이 있었다. MBTI 검사 이후 유심히 관찰하였더니 이 아이는 학급 친구들뿐만 아니라 다른 반 친구들에게도 인기가 많아 여러 명의 친구가 이 아이에게 먼저 장난을 거는 경우가 많았다. 혼자 있

을 때 에너지를 충전하는 아이가 늘 친구들과 함께 있다 보니 학교에서 자신을 충전할 시간이 충분치 않아서 기운이 빠졌던 것이다. 내가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 아이가 알고 보니 내가 생각한 것과 완전히 반대 성향을 지녔다는 사실이 창피하여 온몸이 수축되는 느낌이 들었다. 이렇게 오만한 눈으로 아이들을 바라보았으니 아이들의 마음을 온전히 얻지 못하는 건 당연하다. 마치 다아시가 ‘나 정도의 재력과 사회적 지위, 외모와 성품이라면 당연히 젊은 아가씨의 승낙을 받을 수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엘리자베스에게 프러포즈했다가 거절당했듯이 나도 ‘이 정도로 열성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라면 당연히 아이들에 대해 소상히 알 수 있고, 또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겠지?’라고 착각했다. 내 마음이 다아시와 다를 바 없는 줄도 모르고.

내가 다아시라면 반대로 아이들은 엘리자베스와 같은 면이 있다. 고학년 담임을 오래 맡다 보면 듣게 되는 말 중 전설처럼 구전되어 내려오는 이야기들이 몇 가지 있다. ‘첫날엔 이를 드러내선 안 된다.’가 그 중 하나인데 첫날, 더 멀리 보면 3월 한 달 동안 아이들이 선생님을 소위 ‘간 보고’ 나서 그에 따라 행동한다는 것이다. 나의 첫인상에 따라 내 말에 실리는 무게가 달라지니 아이들에게 ‘간이 멍멍한’ 교사로 보이지 않으려면 최대한 적게 웃고, 단호하게 말하고, 심지어는 올 블랙으로 빼 입고 진한 메이크업을 하는 정성을 발휘하기도 한다. 그러나 엘리자베스가 자신에게 사근사근하게 굴던 위컴을 제인에게 전해 들은 말에도 불구하고 좋게 평가하고, 첫 만남에서 불쾌감을 줬던 다아시를 오랫동안 미워한 것을 보면 첫인상에서 오는 편견은 무시할 수 없는 존재다. 특히 한 번 별로라고 생각한 사람을 계속 미워하게 되는 건 내리막 길에서 눈을 굴리는 것만큼 쉬운 일이다. 관성의 법칙이 작용하듯 그 뒤로는 어떤 행동을 해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어지기 때문이다. 그

래서 교사들이 무서운 첫인상으로 경직된 분위기를 만들기보다는 아이들에게 편안하고 긍정적인 인상을 심어주는 것이 더 현명하다는 생각이 든다.

“오만과 편견”의 또 다른 매력은 다양한 군상의 인물들을 만날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 주변에 꼭 한 명쯤은 있을 것만 같은 사람도 등장하고 어쩐지 제인 오스틴이 자신의 이상향만 뜰채로 떠내어 만든 것만 같은 인물도 있다. 그중에서 교사인 나는 어떤 인물에 가장 가까운 모습을 하고서 아이들을 만나야 할까? 빙리는 순하고 어질지만 우유부단하며 친구의 판단을 그대로 믿고 자신의 삶에 반영한다. 빙리에게서 나는 작년 담임 선생님의 말을 듣고 그 선생님의 시선을 반영하여 아이를 대하던 모습이 떠올랐다. 교사에게 필요한 건 올해의 담임인 자신의 판단이다. 교사와 학생의 만남도 인간관계의 일종이기 때문에 다른 선생님과 맞지 않던 아이가 나와는 잘 맞을 수도 있다. 또한, 모두가 행복한 학급 살이를 하기 위해서라면 선생님이 일정한 기준에 맞춰 단호하게 결정하고 아이의 행동을 제지할 줄도 알아야 한다. 엘리자베스의 아버지는 지혜롭고, 다른 이들의 어리석음과 불운을 블랙 코미디로 승화할 줄 아는 아주 ‘쿨한’ 사람이지만 다아시의 지적대로 딸의 잘못을 꾸짖어야 하는 상황에서도 비웃기만 하는 건 결코 바람직한 태도라고 할 수 없다. 그것은 진정한 교육이 아니라 걱정을 가장한 방종이며 자신만의 유희를 즐기는 것에 불과한 행동이다. 가장 경계하고 싶은 인물을 꼽는다면 메리와 콜린스이다.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체제하는 콜린스나 현실과 어울리지도 않는 책의 구절만 읊어대는 구닥다리 메리 선생님이 되는 것만큼은 정말 피하고 싶다. 혼자만의 세계에서 으스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우습다 못해 처연한 마음까지 든다.

이번에 다시 책을 읽는 동안 내 마음속에 가장 새롭게 자리 잡은 인물

은 바로 제인이다.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사려 깊고, 모든 이를 편견 없이 대하며, 자신이 겪기 전까지는 어떤 인물도 쉽게 판단하지 않는다. 심지어 악행을 저지른 인물에 대해서도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을 것’이라며 최대한 이해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극도로 선량한 모습이 너무 이상적이라 때로는 바보 같아 보일 수도 있지만 나의 롤모델에 가장 가까운 인물이라고 느꼈다. ‘재가 작년 이 학년에서 가장 유명했다더라’라는 소문에도 흔들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아이를 바라보는 힘은 제인 같은 마음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규칙을 어긴 행동에 대해 단호하게 교육을 하면서도 ‘어떻게 이런 최소한의 약속도 지키지 않는 거지!’라는 생각보다는 ‘그런 사정이 있어서 지킬 수 없었구나. 다음에는 꼭 지키길 바라고 오늘 네가 한 행동에 대해서는 약속대로 책임을 지자.’라고 여기는 것이 나와 아이 모두에게 바람직하다. ‘네가 어떻게!’라는 생각이 쌓일수록 커지는 건 스트레스와 관계 악화뿐이니까.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라고 해도 나는 아직까진 최대한 아이들을 이상적이고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고 싶다. 냉정한 현실과 예외적인 일들을 겪어도 봤지만, 그래도 나의 따뜻한 눈길에 아이들은 따스한 추억을 저장하고, 그 추억이 훗날 그들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나의 판단력이 흐려지면 냉소적인 다아시의 눈이 깨어나 부족한 면을 채워줄 것이라고 믿는다. 그렇게 나는 앞으로 제인과 다아시가 엮치락뒤치락하는 모습의 교사로 아이들을 계속 만나지 않을까. 내 일은 긴 주말이 끝나는 슬픈 월요일이니 온화한 제인 선생님이 되어 아이들과 함께 아침을 열어야겠다. 긴 하품도, 무기력함도 월요일에서 온 것이니 조금은 눈감아 주려고 한다. 선생님도 실은 월요일이 힘들단다.

2021 인문학 도서 집필위원 공모 당선작

8인의 두드림

상현이

대성초등학교 모회정



상현이

대성초등학교 모회정

2004년 여름, 그 아이의 죽음을 아직도 기억한다. 어쩌면 해마다 무감각하게 안내될 법한 물놀이 안전수칙을 아직도 목소리를 가다듬어가며 이야기하게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상현이는 우리 반 부진아였다. 5학년임에도 한글을 읽고 쓰는 것조차 어려운 기초부진이었다. 학기 초 아이의 집을 방문했을 때, 시대를 거슬러 70년대쯤으로 온 것은 아닌가 내 눈을 의심했었다. 앞서 걷는 녀석의 속도를 쫓아가기에 벽차 아이의 이름을 몇 번이나 불렀는지 모른다. 그러면 아이는 웃음을 깨문 채 못 이긴 척 나를 기다려주었다. 말할 때마다 입을 삐죽이며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리던 아이는 고작 2학년이라 해도 믿을 만큼 말랐고, 작았다. 끝이 없는 좁은 길은 어느 동네의 가파른 언덕을 올라 소여물과 분비물 냄새가 진동하는 곳에서 멈췄다. 쓰러져가는 한옥. 격자무늬의 나무 창살에 누렇게 뜬 창호지는 텃마루에 앉아 계신 할머니의 머리칼 색과 비슷했다. 좁은 마당 한 칸

에 우람한 소 한 마리가 짙을 우적우적 씹어먹고 있었는데 아이의 집에서 그럴듯해 보이는 유일한 재산 같았다. 아이의 온전한 양육자는 허리가 굽은 할머니, 할머니뿐이었다. 아이의 엄마는 정신이 온전치 못했고 아이의 삼촌은 온 동네를 돌아다니며 사고를 치는 유명한 알코올 중독자였다.

아이는 늘 반 아이들에게 무시를 당하거나 놀림거리가 되곤 했지만 가끔은 제 논리로 주먹을 불끈 쥐고 대들기도 했다. 아이의 주먹을 겁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수업 중 아이는 없는 아이처럼 조용했다. 간혹 입술을 삐죽 내밀거나 머리를 굽적거리거나 열심히 연필을 움직이긴 했다. 맞춤법이 틀린 글씨가 또박또박 진하게 공책을 눌러 뒷장에 음각처럼 새겨졌다. 운동감각이 뛰어난 것은 아니지만 땀이 날 만큼 밖에서 움직이는 걸 좋아했다. 제 차례가 되면 누구나 싫어하는 화장실 청소를 싱글벙글 웃어가며 기가 막히게 잘 해내던 아이였다. 아이는 방과 후에도 집에 가지 않고 항상 교실에 남았다. 아이를 챙겨줄 사람이 없었다. 부진아 지도라는 이름으로 남겨 공부를 시켰다. 수업이 끝나면 당연한 듯 내 책상 옆에 책가방을 내려놓는 아이. 아이는 어제 했던 것을 또 까맣게 잊고 있을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내가 꺼내 주는 간식을 먹는 행복으로, 나는 간식이라도 줄 수 있어 다행인 마음으로 마주 앉았다.

여름방학이 찾아왔고 아이는 방치된 채 동네를 서성였을 것이다. 연수를 듣느라 출장 중이던 내게 뜻밖의 연락이 왔다. 아이의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것이다. 가정방문을 갔을 때, 할머니와 대면하던 나를 문짝 사이로 살짝 엿보던 어머니의 실루엣이 떠올랐다. 닫힌 문짝 뒤에 있을 어머니의 존재가 서늘해 자꾸 그쪽으로 눈길이 갔었다.

교장 선생님과 교무 선생님을 모시고 아이의 집을 찾았다. 조문이란 걸 생전 처음으로 해 보는 데다 그런 줄도 모르고 나선 길이라, 내 마음은 가시방석이었다. 블라우스와 흰색 팬츠, 맨발인 채로 신은 샌들은 누가 봐도 조문에 어울리는 복장이 아니다. 하지만 아이의 집을 아는 사람은 나였고 나는 아이의 담임이다. 다른 대안을 제시하기에는 난 너무 소심한 신규였다. 냄새는 전보다 더했다. 사람의 수고가 닿지 않은 마당은 소 마구에서 흘러나온 분비물 냄새로 진동을 했다. 앞선 교무 선생님의 미간이 찌푸러지는 듯했다. 초상집이 아닌가 했다. 조문객도 없이 조용한 그곳을 쇠파리만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따가운 여름 벌레 데워진 디딤돌을 오르며 내 마음도 알 수 없이 뜨뜻해졌다. 텃마루로 올라설 때쯤 향을 태우는 냄새가 났다. 어두운 방 안, 아이는 슬픈 건지 알 수 없는 기색으로 우두커니 방구석에 서 있었다. 삼베로 된 상복은 아이에게 너무 컸다. 새까만 얼굴이 더 작게 보였다. 오른팔에 채운 완장이 덜렁거렸다. 때마침 쇠파리 한 마리가 날아 들어와 주변을 성가시게 했다. 교장 선생님께서 대표로 분향을 하시는 동안에도 맨발로 선 내 발이 부끄러워 눈은 계속 아래로 갔다. 얼른 내려가고 싶었다. 다행히 같이 간 교장 선생님과 교무 선생님이 몇 마디 말로 위로를 표하고 급히 신을 신으신다. 난 그 뒤를 아이처럼 졸졸 따라나섰다. 오는 길에 계속 마음이 덜컹덜컹했다. 어찌자고 아이를 한 번 안아주지도 못하고 나왔을까.

그날 저녁에 잡혀 있던 직원회식이 당연히 취소될 거라 생각했다. 그런 일은 없었다. 안 간다고 말하면 그만이었을까. 나는 신규였고, 너무 어렸다. 복잡한 마음인 채로 회식 자리에 앉았다. 술이 오른 교무 선생님의 큰 목소리에 고개를 돌리다 서빙을 하는 여직원을 슬쩍 스치는 손길과 마주쳤다. 부아가 치밀었지만, 가만히 고개를 떨구었다. 내 앞에

계시던 선생님이 왜 기운이 없냐며 이 반찬 맛있다 먹어보라 하셨다. 콩잎지가 담긴 접시가 내 앞에 왔다. 고춧가루 양념이 얹힌 노랑고 투명한 콩잎지였다. 완장을 찬 상현이의 표정이 떠올랐다. 슬픔조차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고 섰던 그 아이처럼 나도 어리숙하게 콩잎지나 쳐다보고 있었다. 콩잎지가 흐릿해졌다가 선명해졌다. 입술을 꼭 깨물었다. 교사가 된 걸 처음으로 후회한 날이었다.

2학기, 상현이는 언제나처럼 같은 모습으로 학교로 돌아왔다.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았다. 나라고 아이에게 달리해 줄 것도 없었다. 아이를 보면 그저 마음만 먹먹했다. 아이가 6학년이 된 다음 해까지 우린 같은 반이었다. 아이는 여전히 부진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다녔으며 우린 서로에게 익숙해진 채로 비슷한 날들을 보냈다. 계절은 빠르게 지나갔다. 또 여름방학이 찾아왔다.

동네 저수지라 했다. 동네 형과 먹을 감으러 들어간 아이는 그 차가운 물 속에서 눈을 감았다. 한낮에 벌어진 이 끔찍한 일을 알게 된 건 늦은 오후, 어느 학부모의 전화 한 통 덕분이었다. 전화를 끊을 때쯤 내 목소리가 무지하게 떨렸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 나는 며칠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자꾸만, 보지도 못한 아이가 떠올랐다. 뜨거운 태양 아래 눈부셨을 그 물빛과는 상관없이, 수면 위로 떠올랐을 아이의 주검이 계속 떠올랐다. 같이 있던 아이가 집으로 가서 119에 신고를 하고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2시간이 지난 후라고 했다. 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철저히 혼자였을 아이가 너무 가여워 껴이끼이 울었다.

장례식도 없었다. 아이의 집을 혼자서라도 찾아가야 하는 건지, 가서 무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우물쭈물하다 시간이 흘러버렸다. 아이의 죽음을 슬퍼하고 궁금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더욱, 아이의 죽음이 거짓말처럼 여겨졌다. 방학이 끝나고 2학기가 시작되었다. 상현이가 왜 안 오지. 유난히 상현이와 자주 다투던 녀석이 한 마디를 꺼냈다. 금기의 말을 꺼낸 듯 반 아이들이 눈치를 주었고 상현이의 죽음을 뒤늦게 안 아이는 믿기지 않는 듯 헛웃음을 지었다. 상현이와는 다른 면에서 가정환경이 좋지 않았던 아이였다. 상현이를 제일 괴롭히기도 했지만 제일 가깝기도 했기에 상현이의 죽음은 충격이었을 것이다. 분명 그랬을 것이다. 그 해가 마무리될 즈음 6학년 졸업앨범에 들어간 단체 사진에 있는 상현이를 보았다. 2년마다 5, 6학년이 함께 가는 수학여행이라 사진에서 상현이를 지울 수 없었다. 단체 사진에는 새까만 상현이가 왼쪽 구석에서 하얀 이를 드러내며 웃고 있었다.

생의 고단함을 덜어주고 싶어서 한 해 먼저 간 엄마가 데려간 건 아니냐고, 어찌면 아이에게 잘된 일인지 모른다고 누가 그랬다. 잘된 일? 잘된 일. 나는 아이의 까맣고 마른 얼굴을, 기분 좋을 땐 입가에 하얗게 거품이 생기도록 재재대던 아이를 떠올리며 그 말을 몇 번이고 굴러보았다. 부족한 아이 잘 부탁한다며 꼬깃꼬깃한 천 원짜리 네 장을 내 손에 던지듯 주고 돌아서던 할머니는 도대체 어찌고 계시는지, 나는 내내 그냥 무기력했다. 지금쯤 그 아이를 만났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달라졌을까. 철저히 결핍 속에 있는 아이를 만나는 일은 여전히 나를 흔들어 놓는다. 때로는 슬픔조차 위로받지 못한 아이의 상황이 온전히 내 책임같이 여겨지기도 했다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

는 막막함에 무기력도 했다.

16년 만에, 우연히 아이의 이름을 다시 들었다. 2020년 6월, 친할머니의 빈소에서 일을 거들면서였다. 아버지를 찾아오신 조문객 한 분이 상을 차리는 내게 상현일 아냐고 물었다. 내가 의아해하는 표정을 지었더니, 아이가 살던 동네 교회에서 아이를 가르쳤던 적이 있다 했다. 아버지로부터 내가 근무했던 학교와 상황을 듣고 하시는 말씀이었다. 상현이 죽은 거 알죠? 상현이가 그때 저한테 그랬거든요. 우리 선생님이 너무 좋다고요. 그러면서 일행에게 아이에게 일어난 자초지종을 이어가시는 동안 나는 얼른 접시를 내려놓고 일어섰다. 목울대가 시큰해 계속 침을 삼켰다. 하얀 이가 드러나게 웃던 새까만 상현이가, 계속 똥똥 떠 있다. 보지도 않은 아이의 주검이 머릿속에 계속 똥똥 떠 있다.

2021 인문학 도서 집필위원 공모 당선작

8인의 두드림

나의 카이로스를 찾아서

통영중앙중학교 서연숙



나의 카이로스를 찾아서

통영중앙중학교 서연숙

‘변화는 유일한 상수다.’ 내가 참 좋아하는 문장이다. 이 문장을 만나고 마음에 새기게 된 이후 나는 매일 변화를 꿈꾸게 되었다. 그동안 스스로 엄마라는 틀에 갇혀 있던 나는 기존의 나를 깨고 세상으로 나왔다. 『데미안』의 주인공 에밀 싱클레어처럼, 과연 내 속에 솟아 나오려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결혼 후 아이를 낳고 기르며 화가 나고 답답하면 책을 읽었다. 그러다가 집안일이 끝나고 아이들이 자는 평화의 시간에도 책을 읽었다. 기분이 좋은 날에도, 눈이 번쩍 떠진 날에도 책을 읽었다. 그렇게 그냥 책을 읽는 것이 좋았다. 나는 원래 책을 좋아하고 많이 읽는 문학소녀가 아니었다. 읽어야 해서 어쩔 수 없이 읽곤 했던 내가 스스로 책을 찾아 읽은 이유는 일종의 도피였다.

2019년 가을에서 겨울로 가던 시간, 저녁 밥상을 차려 놓고 남편이 퇴근해 오면 바통터치하듯 집을 나와 나는 혼자 걷기 시작했다. 저녁 7시 이후에는 여느 집과 마찬가지로 가사 노동이 본격화되는 때이다. 돌아온 아이들 도시락과 물통까지 해서 싱크대 한 가득의 저녁 설거지를 해야 하고 하루 이틀만에도 수북이 쌓이는 빨래들을 세탁기에 돌리고 돌아서면 엉망인 집을 치워야 하고 아이들을 씻기고 책 읽어주며 재워야 하는 시간에 쳇바퀴 돌 듯 종종거리며 살아오던 나는 덜컥 나를 찾겠다며 집 밖으로 나와 무작정 걸었다. 그렇게 내가 조금씩 자유를 찾는 만큼 남편은 힘들어했다. 일과 육아의 병행, 그것은 엄마인 나만의 고충과 문제가 아니었다. 아빠인 남편도 늘 피곤했고 쉬고 싶었고 자유를 찾아 나가고 싶었다. 그에겐 낚시와 회식, 친구들과의 술자리라는 자신만의 해소 영역이 있다고 믿었지만 그는 스트레스를 다 풀지 못하고 얼마간 잠시 잊고 돌아오기만 할 뿐이었다. 그 또한 늘 답답했다. 뜨겁게 사랑했던 우리, 슬기롭게 육아와 가사 노동을 배분하여 합리적으로 살고자 했던 우리는 온데 간데 없고 신혼의 딱지가 떨어지고 현실을 마주하자 우린 늘 싸웠다. 언성을 높이는 날도 그냥 말을 하지 않는 날도 서로에게 이기적이라며 답답해하는 날도 늘었다. 결혼한 지 8년, ‘내가 왜 이 남자와 결혼을 했을까?’ 하는 본질적이고 허무한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다. 그런 생각이 드는 날이면 에코백에 책을 한두 권 챙겨서 친구가 새로 오픈한 스터디 카페로 향했다.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종교가 없던 내가 어머니를 따라 성당에 처음 갔을 때, '레아'라는 세례명을 받았을 때, 그때 거부감 없이 그냥 좋았던 이유는 이 구절에 있었다. '이 남자와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사랑하며 살아야지.' 하지만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었고 우리의 사랑도 식어가면서 내게도 결혼에 대한 회의감이 수도 없이 밀려왔다. 결혼 후 매일이 그랬던 것은 아니었는데 딱 그해 겨울이 지독하게 그러했다.

양가 도움 없는 두 아이 독박육아의 상황에서 나의 복직은 우리의 삶에 엄청난 변화를 야기했다. 매일의 크고 작은 소모전을 치르다 결국 가내(家內) 신냉전 체제가 형성되었다. 전에 겪어보지 못한 감정의 소용돌이를 만나 어느 날 답답한 마음에 K언니에게 전화를 걸어 남편 흉을 보기 시작했다. 잠자코 들어주던 언니는 '나도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스님의 주례사』라는 책을 만나 지금은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라며 내게 그 책을 읽어보기를 권하였다. 통화를 마치고 책장을 들여다보니 한쪽 구석에 그 책이 있었다. 스물일곱, 결혼을 앞둔 내게 미혼이었던 대학 선배 H가 '스님 말씀 참고해서 남편하고 잘 먹고 잘 살라'는 의미로 보내준 책이었다. 그런데 스님은 자꾸 '남편의 모든 잘못도 알고 보면 다 네 탓이니 참거나 마음을 비우라.'고 하셨다. 선배에게는 미안했지만 앞쪽에 몇 장 읽다가 스님의 시대착오적인 주례사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나는 이내 책을 덮었고 그렇게 그 책은 책장 구석에 가서 수 년째 그대로 있었다.

언니의 추천으로 나는 감정이 요동치는 이 삶에 구원을 찾는다는 심정으로 『스님의 주례사』를 다시 손에 들었다. 하지만 여전히 스님의 말씀은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스님은 결혼을 안 하셔서 이렇게 허무맹랑

한 말씀을 하시는 거지.'라며 책을 읽으면서 나는 계속 씩씩거렸다. '나도 사악한 인간인가? 크게 잘난 것도 없는 이 사람 덕을 보려고 내가 결혼을 했다고? 덕을 보려면 이보다 더 잘난 사람을 만났겠지. 다 내 업보요. 내 잘못이로다.' 스님의 결혼관과 싸우듯 책을 읽어내려 가던 중 '내가 아닌 것을 내가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말라.'는 문장을 읽고 지금까지 거부해왔던 스님의 뜻을 일부 수긍하게 되었다. 그리고 한동안 이 구절이 계속해서 내 머릿속을 떠다녔다. 울림을 주는 좋은 문장을 만났지만 아직도 전적으로는 책의 내용을 받아들이긴 어려웠고 나는 그냥 다른 책을 읽기 시작했다. 하버드의 리더들이 어떻게 성공하는지 알아보려 펼쳐 본 『하버드 강의 노트』, 말로 먹고 사는 내게 필요로 하는 화술과 관련한 『말센스』, 『언어의 온도』, 『말의 품격』,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이었다. 관련이 없어 보이는 이 책들에서 나는 무언가 스님의 뜻과 궤를 같이 하는 의미를 찾았다.

환경은 바꿀 수 없지만 자신은 바꿀 수 있다.

현실은 바꿀 수 없지만 태도는 바꿀 수 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현재는 바꿀 수 있다.

내일은 예측할 수 없지만 오늘을 잘 살 수 있다.

날씨는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기분은 바꿀 수 있다.

삶의 길이를 늘일 수는 없지만 삶의 폭을 확대할 수는 있다.

외모를 선택할 수 없지만 활짝 웃을 수는 있다.

타인을 조종할 수 없지만 각각의 일에 최선을 다할 수는 있다.

하오린, 『하버드 강의 노트』 중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 나 자신뿐이다. 늘 지나치지 말고 겸손하자. 상대를 인정하자. 그것이 남편이든, 아이든, 교실에 앉아 있는 아이들이든.” 나는 이 책들을 읽고 좋은 문장을 필사한 공책 여백에 이런 다짐의 글을 남겨두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과 더 잘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스님의 주례사』를 썼을 때만 해도 옳지만 인정하기 싫은 법륜의 말씀에 나는 여전히 심리적으로 반발했다. 하지만 읽고 있던 다른 분야의 책들에서도 스님과 표현은 달랐으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와 같은 궁극적인 물음에 있는 비슷한 답을 얻을 수 있었다. 부부에게는 이해와 공감의 필요하다. 상대를 인정을 하는 것이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행복해지는 길이다. 스스로 찾은 나의 답은 인생에 나를 중심에 두고 나와 다른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를 꿈꾸며 혼자 걷고 좋아하는 공간에 가서 조용히 책을 읽으면서 나는 무언가 스스로 깨닫고 배우게 되었다. 그것은 내게 카이로스였다.

카이로스(kairos), 누구에게나 주어진 물리적 시간 외에 존재하는 어떤 운명적이고 의미 있는 시간.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 빛나게 만드는 시간 성공한다는 것, 세상을 잘 산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카이로스를 갖느냐의 문제이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오늘 이 시간을 최고로 가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것,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람과 성취를 느끼며 하루하루를 밀도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나의 카르페디엠이다.

유대열. 『나는 경제적 자유를 꿈꾼다』 중

책을 통해 나는 삶의 지혜를 얻었고 사색의 힘을 배웠다. 자유를 갈망하며 책에 빠져들었던 2년 여의 시간 동안 책에 의해 내 삶은 정말 많이 달라졌다. 나를 중심에 두고, 상대를 인정해야 한다는 깨달음을 나는 학교에서도 적용하기 시작했다. 남편을 인정하기로 했듯,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우리 집 아이들을 보듯, 교실 속 학생들을 바라보게 되었다. 나는 더 이상 학교에서 학생들과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안 되면 말고, 무엇이든 겁 없이 하고 보는 자신감이 생겼다. 책을 읽고 함께 나누는 좋은 동료들이 생겼고, 아이와 매일 저녁 인터뷰하듯 대화를 나누며 글을 쓰고 있다. 남편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그리도 힘든 일이었을까? 그간의 남편과의 불화는 눈 녹듯 사라졌다. 어느 드라마에서 본 것과도 같은 평화롭고 따뜻한 저녁 시간, 함께 쓴 글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우리는 잠에 든다. 나로 인해 우리의 삶도 계속해서 달라지고 있다. 책으로 인한 삶의 변화, 그 시작 지점에서 얼마 지나지 않은 날에 나는 이 글을 썼다.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고 아이가 불러준 글들을 모아 우리는 독립 출판이라는 생경한 경험을 해보았다. 책이 스며든 나의 중년과 노년의 삶은 어떻게 될지 기대되고 궁금하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에게도 그 시작이 서서히 펼쳐지기를 바란다.

2021 인문학 도서 집필위원 공모 당선작

8인의 두드림

글쓰기에 대한 학창 시절 추억

호암초등학교 성선희



글쓰기에 대한 학창 시절 추억

호암초등학교 성선희

내가 고등학교 다니던 시절에는 작문이라는 교과가 있었다.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다. 국어과의 갈래였는데, 그때 국어과는 문법, 작문, 현대문학, 고전문학 어찌고저찌고가 있었던 것 같다. 하도 오래 전 일이라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다.

작문 선생님은 약간 마른 남자였다는 거 말고는 딱히 기억나는 건 없는데 글쓰기에 관한 한 지금도 잊을 수 없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은 강한 인상을 남기신 분이다. 글을 잘 쓰는 비결에 대한 인상이었으면 오죽 좋으랴. 고등학교 1학년 어느 가을날 그 선생님의 수업 한 시간 때문에 나는 다시는 글을 쓰지 않겠노라고 다짐을 했던 적이 있다.

수업은 대개 어떤 주제에 대한 글을 써오라고 숙제를 내고, 수업 시간에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책 읽기와 글쓰기를 좋아하고, 써놓은 글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도 좋아하던 나였지만 그 수업은 별

로 재미가 없었다. 영어나 지리 과목이 재미없었다는 것과는 다른 건데 뭐랄까 잔뜩 기대하고 보던 드라마가 뻘한 내용이거나 시시할 때 느끼는 감정과 비슷한 것이었다. 숙제로 내주는 글쓰기의 주제도 시시했고 게다가 꼭 존댓말로 써야 한다거나 공책에 적은 뒤 원고지에 옮겨 적어야 한다거나 하는, 왜 그래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작문 외적인 제약이 많았다. 써온 글을 발표하고 나면 글에 대한 평가를 겸해서 지도 조언을 해주었는데 그 또한 별 볼일 없이 느껴졌다.

사람마다 글을 쓰는 방식이 다르겠지만 나는 한 번에 휘갈겨 쓰는 편이다. 학교에서는 주제 정하기, 소재 정하기(글감 모으기), 뼈대 정리하기, 글쓰기, 수정하기 순으로 가르친다. 이 순서로 교과서가 구성되어 있는 걸로 봐서 글쓰기의 일반적 순서가 이럴 것이다. 하지만 나는 무심코 어떤 것에 생각이 머물면 그것에 관한 경험과 경험과 관련된 생각이나 느낌이 이어지다 하고자 하는 말이 정해지는 쪽이다. 가령 야구 중계를 보다 해설위원이 유창하지도 않은 발음으로 영어를 남발해대며 해설하는 것을 보면 울컥하는 마음에 그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을 막 쓰다가 우리말을 아끼고 사랑하자는 것으로 결론을 내는 것과 같은 식이다. 어떤 주제로 글을 쓰겠다고 처음 가운데 끝은 어떻게 하겠다고 하니 계획을 세우고 쓰는 경우는 드물다. 굳이 말하라면 보고서 쓸 때나 그렇게 한다. 아니 어찌면 주제는 나도 모르는 새 '울컥' 할 때 정해지는 건지도 모르겠다. 아무튼 주제를 의식하고 글을 쓰는 쪽은 아니라는 말이다. 대체로 느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며 느낌대로 써 갈겨 놓고는 잘 고치지도 않는다. 그러니 어떤 주제로 글을 쓰시오 하면 딱 고마 머리가 아프고 글쓰기가 싫어진다.

작문 선생님의 글쓰기 주제는 느낌과는 별 상관이 없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삼강오륜이었을까 윤리 덕목이었을까 누가 써도 뻘한 글이 나올

것 같은 주제였고 실제로 발표하는 친구들의 글도 뻘한 내용이었다. 나 또한 재미도 감동도 없는 글을, 내가 쓰고도 나조차 사랑스럽지 않은 글을 그저 숙제를 해내는 것에 의의를 두고 써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 선생님이 ‘길’이란 주제를 내주셨다. 길이라니, 충성도 아니고 효도도 아니고 주제가 길이라나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머릿속에는 환한 그림을 보듯 선명한 길이 생겼다. 삼강오륜이 아닌 것만으로도 의욕은 하늘을 찔렀다. 그 길로 바로 글을 썼다.

길이라 하면 여러 가지가 있다. 가장 쉽게 떠오르는 건 걸어 다니는 도로일 것이고, 무언가를 하는 방법, 미래의 꿈을 나타내는 길, 인생길 등도 길과 연결지을 수 있다. 나는 고향 들판의 길을 선택했다. 넓디넓은 황금별판 사이로 곧게 뻗은 길, 빗물을 머금고 더욱 새까매진 아스팔트 길가에 코스모스가 하늘거리고 도랑의 물소리가 정답던 길, 노랗게 익은 벼가 하나 둘 고개를 숙이고 플라타너스 가로수 사이를 참새가 떼를 지어 날아다니던 길, 가을이 충만한 길이었다. 비포장도로일 때부터 덜컹거리는 시골 버스를 타고 왔다 갔다 하던 그 길은 어린 시절 나에게 도시의 냄새를 안겨주던 신작로였고 전학을 온 이후에는 고향으로 향하는 그리움이었다.

그 가을을, 그 그리움을 글로 썼다. 엄밀히 말하자면 길은 주제가 아니라 글감이었다. 가을을 좋아하는 내가 가을 속에 놓인 길을 예찬하듯 썼으니 존댓말이 될 리가 없었다. 공책에는 떠오르는 느낌을, 생각나는 구절을 대중없이 아무렇게나 휘갈겨놓고 원고지에 바로 글을 썼다. 원고지는 쉽게 채워졌다. 연필은 한 번도 쉬지 않았고 글을 쓰는 내내 나는 가을에 흠뻑 젖었다. 그래서였겠지. “시몬 너는 좋으냐 낙엽 밟는 소리가”로 끝을 맺은 건. 아니라면 누군지도 모르는 프랑스 작가의 시가 너무 멋있게 느껴져서 굳이 가을의 길 끝에 갖다 붙여 놓고 싶었던,

아직 사춘기가 끝나지 않은 여고생의 허영이었을 수도 있다.

나 혼자 발표를 했는지 몇 명이 더 했었는지는 모르겠다. 자진해서 발표하는 사람이 없자 선생님은 나를 지명하셨다. 날짜와 번호가 겹쳤기 때문이다. 별 거부감 없이 칠판 앞으로 나가 발표를 했다. 조금 떨렸던 것 같기도 하고 선생님과 친구들의 반응이 궁금했던 것도 같다. 다 읽고 나자 선생님은 공책을 가져와 보라고 했다. 쓰다 만 공책이 걱정스러웠지만 선생님께 드렸고, 공책을 살펴보신 선생님은 별 말 없이 돌려주었다. 왜 공책을 보자고 했는지 궁금했지만 물어보지는 않았다. 수업이 끝나기 직전 선생님이 내 글을 평하실 때 나는 선생님이 공책을 보자고 한 이유를 알았다. 선생님의 평가는 간단했다.

“글에는 글 쓴 사람의 냄새가 나야 한다. 잡지책 냄새가 나면 안 되지.”

잡지책에서 베꼈다고 의심을 하신 것이다. 공책에 휘갈겨놓은 흔적이 없었다면 베꼈다고 단정을 하고 혼을 내려 했던 모양이다. 완성된 글은 아니었지만 휘갈겨놓은 구절들은 내 생각을 보여주기 충분했고 그래서 차마 베꼈다고 말은 못 하지만 뭔가 모르게 못마땅했던 것이다.

무방비 상태에서 한 방 맞은 듯이 멍한 기분이었다. 뭐라고 말할 틈도 없이 수업을 마치는 종이 울렸고 선생님은 교실을 나가셨다. 5분 정도를 꼼짝도 않고 앉아 있었다. 짝꿍과 앞뒤 친구들이 글을 너무 잘 써서 그런 거라며 위로를 했지만 하나도 들리지 않았다. 초등학교 입학한 이래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선생님에 대한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잡지책 냄새는 대체 어떤 냄새인가, 글 쓴 사람의 냄새라니, 내가 어떤 학생인지 알기나 하고 하는 말인가, 학생의 글에선 삼강오륜 식 각오나 다짐이 없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건가. 창피한 줄도 모르고 눈물이 터져 나왔다. 있는 힘껏 원고지를 찢어버렸다. 다시는 글을 쓰나

봐라 쓸데없는 다짐을 하느라 얼굴이 벌게졌다.

교사가 되고, 나도 아이들의 글을 많이 본다. 글쓰기를 가르치기도 한다. 신규 교사도 아닌데 글쓰기를 가르치는 일이 나는 매번 어렵다. 수학이나 역사나 과학을 가르치는 건 어렵지 않다. 국어도 문법을 가르칠 땐 전혀 어렵지 않다. 글쓰기란 교사가 잘한다고 해서 쉽게 가르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르친다고 해서 아이들이 잘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나는 다만 아이들과 나누고 싶은 글을 많이 읽어주고 어떠한 방식으로든 많이 쓰게 하며, 쓴 글에 대해 아이의 느낌과 내 느낌을 공유하는 정도로 지도를 한다. 그러다 보면 글의 몸매에 대한 얘기도 하게 되고 생활 속에서 글감을 찾는 방법, 하고자 하는 말을 드러내는 방법도 말하게 된다. 그 정도로 만족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불혹을 넘긴 이 나이에든 나에게 글쓰기는 여전히 '배우고 있는 중'이기 때문이다.

고등학교 작문 시간에 글쓰기를 좀 더 열심히 배웠더라면 지금은 그만 배워도 될 일이었을까? 그 선생님도 나처럼 글쓰기를 가르치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랬던 것일까? 어찌 됐든 나는 글쓰기를 지도하면서 아이들의 느낌을 존중하고 내 생각을 강요하지 않는 것 하나는 확실하게 배웠다. 선생님 덕분이다.

본질에 집중하기

예전에는 TV 프로그램에 자막을 넣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꼭 필요한 경우 한두 문장 넣을 때는 있어도 지금처럼 대놓고 출연자의 대사를 거의 다 집어넣는 경우는 없었다. 요즘은 대부분 자막이 들어간다. 그게 청각 장애우에 대한 배려인지는 모르겠다. 문제는 자막이 있으면 시선이 자연스레 자막으로 쏠린다는 거다. 출연자가 말을 하고 있으니 굳이 자막을 읽을 필요가 없는데도 내 시선은 죽자 하고 자막을 따라간다. 그러느라 정작 봐야 할 장면을 못 보는 경우도 있다. 자막의 수준이 허접스레기 같은 지경이면 들어주는 사람도 없는 잔소리를 하느라 TV를 보는 목적 따위는 잊어버릴 때도 있다. 자막 탓이다. 자막이 잘못했네.

유치원 재롱잔치에 가면 누구나 한번쯤은 하게 되는 행동이 있다. 바로 자녀가 무대에 오를 차례가 되면 엄치 불구하고 카메라를 들고 앞으로 나가 아이의 발표 모습을 찍는 것이다. 마치 이 순간을 놓치면 큰일이라도 날 듯이, 아이의 모습을 영상에 담아 훗날까지 남기는 것이 나라를 구하는 일만큼이나 중요하다는 듯이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앞으로 나가려 애쓴다. 질서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중요한 것도 아니다. 그저 조금이라도 무대 가까운 자리를 차지해서 아이를 사진(영상)에 담는 것이 지상과제다.

내가 그랬다. 큰 아이, 작은 아이 둘 다 그랬다. 그러느라 아이의 동작 하나 표정 하나 살피지 못했다. 그런 건 나중에 영상으로 보면 되고 생각했다. 카메라에 담겼다가 컴퓨터로 자리를 옮긴 그 영상을 나중에 다시 보는 경우는 드물었다. 다시 본다 해도 아이의 표정을, 동작을 직접 보는 것만 했으라.

카메라가 없었다면 아이의 모습을 오롯이 눈에 담고 마음에 담았을 것이다. 나중에 따위는 없다는 듯 그 순간에 집중했을 것이다. 아이의 재롱 잔치에 빠지지 않고 갔지만 나는 두 아이의 재롱을 직접 보지 못했다. 카메라 때문이다. 카메라가 잘못했네.

고등학생이 되면서 큰 아이가 할 일이 많아서 바쁘다는 이야기를 자주 한다. 바쁘다 하면서 내가 볼 땐 할 건 다 한다. TV 보고 휴대폰과 씨름하고 몇 시간씩 축구하고……. 그러느라 바쁜 건가? 바빠서 행복한 것 같지는 않고 목소리에 고단함이 묻어 있다.

아들에게 물었다. 대학생이 되면 덜 바빠질까?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하면 여유로워질까?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 행복해질까? 왜 바쁘지, 무엇을 위해 바쁘지, 이렇게 바쁜 게 정상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건 어때? 그 답이 미래의 나,가 아니라 현재의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거라면 바쁜 걸 즐겨도 좋지 않을까?

쑥쑥 크는 키와 함께 마음이 성장하고 있는 게 보이는 아들은 바쁘다. 공부 때문에 바쁘기도 하지만 마음을 키우느라 바쁘다. 마음을 키우는 걸 고스란히 엄마에게 보여줘서 고맙기도 하다. 마음의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혼란을 느끼는 아들이, 지금 이렇게 고단한 것이 단지 공부 때문이라고 생각해 버릴까봐 걱정도 된다. 그러면서도 아이가 공부를 잘하길 바라는 내 욕심이 아이를 더 고단하게 할까봐 조심스럽다. 다 공부 탓이다. 공부가 잘못했네.

삶의 소용돌이에 사정없이 휘말리다 문득 정신을 차려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싶은 때가 되면 나는 '본질'이란 단어를 떠올린다. 본질이란 단어가 떠오를 때면, 영화 '곡성'을 보지는 않았지만 이 대사를 되뇌곤 한다.

뵈이 중헌디!

2021 인문학 도서 집필위원 공모 당선작

8인의 두드림

두 아들과 함께한 산티아고 순례길

월성초등학교 이민지



두 아들과 함께한 산티아고 순례길

월성초등학교 이민지

혼자서 걸으라는 산티아고 순례길을 나는 두 아들과 함께 걸었다. 2016년 1월이었다.

이 길은 9세기 스페인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에서 예수의 열두 제자 중 한 명인 성 야고보의 유해가 발견되었다고 알려져 유럽 곳곳에서 수많은 이가 순례를 하기 시작한 것이 그 유래이다. 순례길의 출발은 스페인 주요 도시와 포르투갈, 프랑스 등 다양하며 도착은 산티아고 대성당이다. 그중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걷는 길은 프랑스 생 장 피드포드에서 출발하여 스페인 북부를 따라 걷는 '프랑스 길'이며 그 길이는 팔백 킬로가 조금 넘는다. 전 세계 사람들이 종교를 떠나 순례하며 한국 사람들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이 걷고 있다고 한다. 혼자만의 순례를 권유하는 것은 자기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자기와의 진정한 만남을 가져보라는 뜻일 것이다.

2016년 1월은 산티아고 순례길을 알게 된 후 그에 관한 책을 열 권쯤 읽었을 때였고 나보다 먼저 다녀온 이들의 블로그를 수없이 읽고 초보자의 순례를 도와주는 카페에 가입하여 정보를 얻은 지 삼 년쯤 되는 때였다. 순례기 한 권을 읽을 때마다 나는 저자와 함께 프랑스 생 장 피드포드에서부터 시작하여 스페인의 순례길 주요 도시인 팜플로나, 부르고스, 레온, 사리아를 거쳐 마지막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까지 한 발 한 발 함께 걸었다. 저자가 힘들어할 때 함께 힘들었고 저자가 기뻐할 때 함께 기뻐했다. 그러다 보니 나는 열 번도 더 넘게 그 길을 걸은 것 같았다. 눈을 감고도 길을 훤히 알 수 있었고 그 길에서 무엇을 볼지,

만날지, 그리고 느끼게 될지 상상이 되었다. 어서 그 길을 걷게 될 날을 손꼽아 기다렸다. 하지만 학교와 가정에 매인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팔백 킬로가 넘는 그 길을 매일 이십 킬로씩 걷는다고 계산해도 최소 사십일은 필요했다. 나의 체력과 걷는 속도를 고려한다면 오십 일, 육십 일은 족히 필요한 여정이었다. 그래서 퇴직 후에 가자고 들쭉이는 마음을 다독이며 대리만족으로 관련 책만 읽고 또 읽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가고 싶다는 마음이 더 강하게 들었고 더는 참을 수 없을 그때 스페인행 비행기 표를 샀다. 짧은 겨울 방학 일정에 맞추어 프랑스길 완주는 포기하고 레온에서 시작하는 삼백 킬로의 짧은 순례를하기로 했다. 그리고 혼자만의 순례를 권유하던 선배 순례자들의 충고와 달리 중학생, 고등학생인 두 아들과 함께 하게 되었다. 처음엔 혼자 가려고 했지만 두 아들이 함께 가겠다고 했고 생각해 보니 나와 아들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을 가질 수 있겠다 싶었다. 모든 것이 완벽한 때와 준비 후 정석대로 하고자 했던 순례는 나의 조바심으로 가장 완벽하지 못한 모습으로 시작되었다.

첫날 인천에서 뮌헨 공항, 뮌헨에서 마드리드까지 무사히 환승을 하

고 예약한 숙소에 도착을 했다. 순례의 첫 여정인 레온으로 가기 위해 새벽에 일어나 지하철을 타고 차마르틴 역까지 갔다. 여기까지는 계획한 대로 잘 흘러갔다. 두 아들 앞에서 어깨를 으쓱하며 엄마 대단하지라고 뽐도 내보았다. 하지만 영광스러운 순간은 짧았다. 기다리던 기차를 눈앞에서 놓친 것이다. 이유는 승강장과 기차 칸을 나타내는 말을 헛갈려 다른 승강장에서 서 있었기 때문이었다. 덕분에 한국에서 반값에 사려고 힘들게 공부하며 구매 성공에 희열을 느꼈던 기차표는 무용지물이 되었다. 새로 기차표를 사며 돈이 아까웠고 꼬여버린 일정에 어쩔 줄을 몰랐다. 나만 믿고 따라온 아들들 또한 더욱 어쩔 줄을 몰라 했고 우리는 당황스럽고 걱정스러운 마음을 서로를 향한 공격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스페인은 관광지가 아니면 영어를 잘 표기하지 않았고 스페인 사람들도 영어를 전혀 할 줄 모르다시피 했다. 나는 영어도 못 하는데, 스페인어는 아예 모르니 그야말로 낭패였다. 번역기와 맵 사용 또한 미숙하여 도움이 되기보다는 골칫거리가 될 때가 더 많을 때였다. 두 발로 걷는 진정한 순례를 시작하기도 전에 포기하고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만 들었다. 다음 기차를 타고 레온에 도착하여 첫 알베르게(순례자 숙소)로 가는 길에서도 마찬가지로 택시 기사도 우리가 원하는 곳을 전혀 알아듣지 못했다. 뮌헨 공항에 내릴 때 비행기에 두고 온 순례 책자가 너무나 그리운 순간이었다. 평소 우산, 손수건 등 잘 잊어버리는 내가 그렇게 원망스러울 수가 없었다. 온갖 손짓과 발짓을 다 동원하며 ‘까미노’ ‘무니시팔 알베르게’ 를 남발한 후에야 대충 알아들으신 기사님은 우리를 수녀원에서 운영하는 공립 알베르게로 데려다 주었다. 이후 아들들은 엄마만 믿으면 국제 미아가 되겠다 싶었는지 내 휴대폰을 가져 저희끼리 길을 찾기 시작했다. 길을 알고 안내해주던 엄마에서 함께 길을 찾고 고민하는 엄마가 되었다.

나는 엄마니까 아들들에게 무엇이든지 먼저 알고 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들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음을 알게 된 순간이었다. 두 아들을 기르며 어떤 부분에서는 절대 뜻을 굽히지 않는 고집스런 엄마였고 엄마로서 권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엄마였다. 그래왔던 십여년간의 관계가 새롭게 바뀌었다. 더는 어른과 아이, 이끄는 사람과 이끌리는 사람이 아닌 동등한 위치에서 함께 고민하고 의견을 조율하며 순례를 이어 가게 되었다. 이후 낯선 곳, 낯선 사람들 속에서 내가 아들들에게 얼마나 의지하는지 깨달을 때가 많았다. 한국에서는 아이들이 나에게 먹는 것, 입는 것, 심리적인 것까지 전적으로 의지했었는데 말이다. 두 아들은 외국인에게 위축되던 나와는 달리 다양한 국적의 순례자들과 스스럼없이 어울렸으며 문제가 생겼을 때 내게 해결해 달라고 하기보다 스스로 답을 찾아 해결하기도 했다. 내가 발을 다쳐 잘 걷지 못했을 때는 배낭을 대신 들어주고 걸을 수 있게 부축해 주며 나를 보호해 주기도 했다. 순례 후반으로 갈수록 엄마가 해주던 밥을 먹기만 하던 아이들은 내가 볶음밥을 하면 한 명은 감자를 삶고 한 명은 스크램블을 만들기도 했다. 그런 아들들을 보며 이 순례의 시작은 나지만 순례의 완성은 아들들이 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십 킬로가 넘는 배낭을 짊어지고 하루 평균 이십오 킬로 씩 걸으며 나와 두 아들은 참 많은 사람을 만났다. 국적도 다양하고 나이대도 다양했다. 순례길을 걷는 사연도 모두 달랐다. 같은 길을 시작하여 같은 길을 걸으나 그 길의 끝은 참으로 다양했다. 하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우리의 순례가 완성되도록 도와준 사람들이었다. 한 독일인 청년은 자기 집 앞에서부터 걷기 시작하여 휴가 때마다 조금씩 걸어 몇 년째 순례를 이어오고 있다고 했다. 시작과 끝이란 목적의식을 가진 나의 순례와 대비되는 그의 이야기에 도전의 의미로 받아들였던 산티아고 순

레길에 대한 생각이 조금은 바뀌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벨 할머니. 비슷한 일정으로 걷다 보니 다른 알베르계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 이들도 있었다. 그럴 때면 오래된 친구를 만난 듯 서로 무척이나 반가웠다. 예순이 넘은 벨 할머니도 그중 한 분이었다. 미국에서 왔는데 순례 초반을 같이 걸었던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까칠한 성격에 다른 순례지들과 마찰도 있었다고 했다. 우리와는 순례 막바지에 만나 같이 걸었는데 벨 할머니가 발이 아프시다기에 스페인병원에서 무료진료 후 처방받아 샀던 진통제를 나눠 드렸다. 그날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시며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었다. 경찰 공권력에 아들이 희생되었다고, 참을 수 없는 분노로 이 길을 시작했다고 그런데 한국 순례자들의 따뜻한 배려로 마음이 많이 치유되었다고 했다. 같이 이야기를 듣던 한국 순례자들은 처음의 할머니 모습과 지금의 할머니 모습을 떠올리며 모두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치유', 순례길이 주는 또 다른 선물에 대해서 생각해 보며 나는 무엇을 치유하게 될지 궁금했다.

다음으로 결코 잊을 수 없는 레온 대성당 옆의 하농 가게 아주머니. 산티아고 순례길은 노란 화살표만 따라 걸으면 되기에 길을 찾기가 쉽다. 그렇기에 순례 첫날 우리는 위풍당당 알베르계 문을 나섰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노란 화살표가 보이지 않았다. 두 아들의 의견을 따라 레온 대성당까지 가 보았지만 찾을 수 없었다. 그때 하농 가게 문을 여시는 아주머니를 보고는 손짓발짓하며 까미노(순례길)를 알려 달라고 했다. 아주머니는 우리를 보고는 다시 가게 문을 닫고 자기를 따라오라고 했다. 곧 찾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 노란 화살표는 레온 도심을 가로질러 삼십 분 넘게 걸어가야 나왔다. 아주머니는 다시 삼십 분을 되돌아가셔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길을 알려주신 것이었다. 너무나 감사하여 가슴이 먹먹해지며 눈물이 핑 돌았다. 순례길을 걸으면 누

구나 한 번쯤 천사를 만난다더니 우리는 첫날 그렇게 천사를 만났다.

마지막으로 한국 순례자들, 대학생, 취준생, 입대를 앞둔 학생, 막제대한 예비역, 막 명예퇴직한 분 등 많은 이들을 만났다. 대부분 젊은 친구들로 나보다는 한참 어리고 두 아들보다는 나이가 많은 대학생들이었다. 이 길이 처음인 사람도 있었고 두 번째, 세 번째라는 사람도 있었다. 함께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며 순례길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거나 순례 중에 보고 들은 것이나 느낀 것을 두런두런 나누기도 했다. 가끔은 순례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순례 후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속내를 털어놓기도 하며 고된 순례길에 서로 위로와 격려가 되어주었다. 그들에게 순례에 관한 것뿐 아니라 다친 나를 병원에 데려다주는 등 도움을 참 많이 받았다. 특히 두 아들에게도 멘토와 친구가 되어주며 궁금해하는 것들을 알려주고 서로의 미래에 대한 계획과 세상에 대한 생각을 나누었다. 젊은이들만의 문화를 공유하고 추억들을 쌓는 모습이 참 좋아 보였다. 순례 후 각자 자신이 가고자 했던 길을 열심히 가고 있는 그들의 소식은 간간이 SNS 통해 들을 수 있어서 반가워하며 늘 응원하고 있다.

그런 그들을 보며 나는 가만히 생각해 보았다. 새로운 일을 앞두고 용기와 자신감을 얻고자 하는 이들이 대부분인데 새롭게 시작할 것이 없는 나는 왜 그렇게 이 길에 사로잡혀 걷고자 했던가? 나는 지금, 여기 왜 와 있는가? 이것은 순례하는 동안 나의 화두가 되었다. 그 해답은 여행을 마치고 마드리드에서 만났던 한 순례자와의 대화 속에서 찾았다. 그녀는 다섯 번째 순례를 마치고 나와 같은 숙소에 묵었다. 그녀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통제권 회복'이라는 낱말이 머리를 '탁' 치며 떠올랐다. '아! 나, 이것 때문에 여기 왔구나' 깨닫는 순간이었다. 그리곤 어이없게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발목을 칼로 찌르는 듯한 고통 속

에서도 흐르지 않던 눈물이었다. 사십여 년을 살아오며 크고 작은 상황 속에서 내가 원하는 일을 하기보다는 해야만 하는 일을 해왔던 것, 나 일 수만은 없어 나를 포기하고 나 아닌 다른 이들을 위해 당위적인 삶을 살며 조금씩 지쳤던 것, 누구의 딸,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 누구의 며느리, 그리고 높은 도덕적 규범에 얽매이는 교사라는 직업. 이 모든 것들은 나를 지켜주는 갑옷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나를 옥죄는 밧줄이기도 했던 것이다. 의무가 되어가던 그것들은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조금씩 내 속으로 스며들고 차곡차곡 쌓여 나를 밀어내고 나 대신 하여 가득 차올라 그날 그 순간에 방울방울 눈물이 되어 흘러넘쳤던 것이다. 그날 나는 눈물로 비워진 그 자리에 조용히 내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치유’의 순간이었다.

감정코칭을 공부하며 알게 된 「개로 길러진 아이」라는 책이 있다. 그 책에는 일관성 없는 양육환경이나 가정 폭력, 살인 현장에 노출되는 등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을 겪고 트라우마를 입은 아이들의 치료 이야기가 쓰여 있다. ‘통제권 회복’이라는 말은 샌디라는 세 살짜리 여자아이의 이야기에서 알게 된 말이다. 샌디는 강도에게 엄마를 잃고 자신도 목에 상처를 입은 채 죽기 직전에 발견된 아이였다. 그 트라우마로 인해 해리 장애가 생겼다. 치료 방법을 찾지 못해 고민하던 담당의사는 처음 만난 날 샌디가 본인이 당했던 자세를 담당 의사인 자기에게 하라고 지시하자 아무 말 없이 따라 주었다. 그러면서 아이의 말을 완전히 따라주는 것이, 아이가 상황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즉 상황의 통제권을 샌디에게 주는 것이 치료의 핵심 요소임을 깨닫고 그대로 따라주었다. 한 달이 지나자 샌디의 지시가 바뀌었고 그제야 치료의 다음 단계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저자는 통제력 회복이야말로 트라우마 스트레스 극복에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다.

아침에 일어나면 걷고 때가 되면 밥을 먹고 밤이 되면 잠을 자는 단순한 일과는 나에게 통제권을 회복시켜 주었고 온몸에 느껴지는 통증에 내 몸이 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런저런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나 스스로, 때론 두 아들과 갈등하며 내 마음이 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들은 바로 치유의 시간이 되어 주었다. 덕분에 이 길을 혼자 걷지 않았어도 나는 나를 만날 수 있었다.

한국인들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이 걷는다는 산티아고 순례길은 나와 같은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인 것 같았다.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많은 당위들이 이 길로 많은 이들을 이끄는 것이리라. 모두 그렇게나마 자기 통제권을 회복하고 치유된 몸과 마음으로 돌아가 남은 삶을 씩씩하게 살아가고자 했으리라.

두 아들을 떠올려보았다. 여행 첫날 자신들도 유심을 사달라던 아이들에게 ‘안돼’라고 말했었다. 같이 길을 걷던 대학생 누나와 형의 일정이 달라지자 그들을 따라가겠다던 큰아이에게 ‘안돼’라고 말했었다. 너무 힘들고 지쳐서 오늘은 걷지 말자고 하는 아들들에게 ‘안돼’라고 말했었다. ‘안돼’ 내가 두 아들의 자기 통제권을 제한하며 한 말이었다. 깊은 반성이 밀려왔다. 나를 힘들게 했던 그것을 나도 모르게 아들들에게 강요하고 있었다. 그래도 참으로 다행한 것은 완벽하지 못한 나의 여행 준비와 낮아진 엄마의 권위로 두 아들은 스스로 순례를 완성하고 자신들의 통제권을 유지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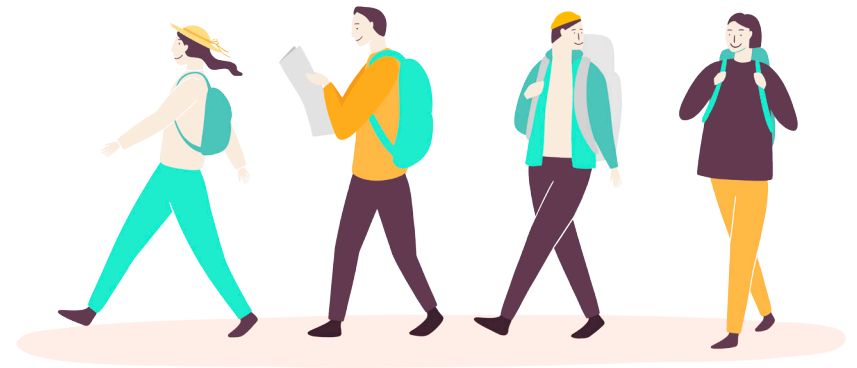
그래서일까? 순례를 마치고 돌아온 두 아들은 자신의 삶을 잘 꾸려 나갔다. 큰아들은 삼 년간 호주에서 자급자족하며 씩씩하게 살다가 돌아왔고 작은아들은 고등학교 학업을 열심히 하여 원하는 대학에 입학했다. 아들들은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한다. 내가 그 겨울에 눈비 맞으며 십 킬로 넘는 배낭을 메고 삼백 킬로 넘게 산티아고 순례길도 걸었는데

무슨 일을 못 하겠느냐고. 의도치 않게 내가 아들들에게 참 좋은 선물을 준 것 같았다. 나에 대하여 치열하게 생각하던 그때, 두 아들도 자신에 대하여 치열하게 생각하고 자신을 만났던 것이다. 그 과정이 쉽지 않은 않아 미안하기도 하지만 솔직히 너무 기뻐다.

일상으로 돌아와 학교 아이들을 다시 만났을 때 나와 아이들의 관계가 순례 전과는 같을 수 없음을 본능적으로 느꼈다. 더는 아이들의 통제력을 제한하는 손쉬운 방법으로 가르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아이들의 자기 통제력 또한 소중하고 지켜져야 함을 알았기 때문이다. 자신과 다른 친구들의 안전을 깨뜨리지 않는 한 아이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자고, 수업이나 생활지도에 일방적 지시보다는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여 '선택'하게 하고 단순하고 규칙적이며 일관성 있는 일과 운영으로 아이들의 자기 통제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방법을 찾자고, 무엇보다 '안 돼'라는 말을 하기 전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말하자고, 이런 원칙을 세우고 좌충우돌 노력 중이다.

한 달간의 산티아고 순례길은 집에 남았던 남편에게도 선물을 주었다. 결혼 후 처음으로 혼자만의 자유에 쾌재를 불렀으나 자유와 그리움은 함께였다고 한다. 덕분에 서로의 소중함을 깨닫고 더욱 돈독한 가족이 될 수 있었다.

짧은 순례였지만 풍족한 선물을 안겨준 산티아고 순례길을 언젠가는 팔백 킬로 완주하기를 바란다. 하농 가게 아주머니를 꼭 다시 뵙길 바란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전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란다. 나 또한 누군가에게 천사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 글을 마친다.



2021 인문학 도서 집필위원 공모 당선작

8인의 두드림

오해와 편견

창원대학교 최선우



오해와 편견

창원과학고 최선우

매년 학생들은 다르다. 유난히 호홉이 잘 맞는 학생들을 만나기도, 하나같이 제 각각의 개성으로 엇박자를 내는 학생들을 겪기도 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가르치는 학생들은 한 가지 지점에서 언제나 동질한 집단 특성을 보인다. 이러한 특성은 교사로서 수업을 설계하고 디자인하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됨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문학을 가르치다 보면 늘 나오는 질문. ‘선생님, 정말 작가가 그렇게 생각한 거 맞아요?’, ‘시를 꼭 그렇게 외워야 해요? 그냥 공감된다, 안 된다고 해석하면 안 되나요?’ 세상에나, 어쩔 내가 학생이었을 때와 똑같은 질문을 하는지. 사실, 나는 학창 시절, 책 읽는 것을 무척이나 사랑하는 학생이었다. 폭넓은 독서량만큼 내 생각은 무럭무럭 자라났다. 생각이 자라고 시공간을 초월하여 정신적 스승을 만나는 기쁨이 클수록 국어시간에 선생님의 설명에 판지를 거는 빼박한 학생이었다. 도대

체가 선생님의 설명을 이해하기도 힘들었기도 했지만, 질문에 대한 근거가 타당하지 않은 답변을 듣고서야 결국 국어시간이 제일 지루하고, 신뢰하기 힘든 과목이 되었다. 몇 년 전 수능문제에 출제된 시인이 자신도 그 문제를 풀지 못하겠다는 언론 인터뷰를 하는 바람에, 국어 뼈딧이들이 무한등비급수로 많아진 것은 웃지 못할 촌극이다.

많은 학생들이 국어를 싫어하는 이유는 극명하다. 바로 ‘모호함’이다. 내가 가르치는 과학고의 학생들은 이 모호함에 심리적 저항성이 유달리 크다. 이는 ‘작품 해석’에서 시작된 작은 의심의 미풍이 ‘평가’에 이르러 폭풍 속 반감으로 크게 자리매김한다. 서술형과 논술형으로만 구성된 시험지를 받아들고는 여기 저기 탄식이 흐른다. 시험이 끝나고 나면 국어와 영원한 이별을 선언하기도 하고, 직접 찾아와 국어 무용론을 주장하기도 한다. 채점을 할 때면 점수 하나라도 더 받기 위한 자기변명식의 제2의 구술평가로 변질되거나, 도저히 그 점수를 인정할 수 없다는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기도 한다. 이쯤되면 교사로서는 상당히 난감하다. 심지어는 수업 설계가 정교하지 못했다는 자괴감도 상당히 크다. 국어는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을까....

모든 문제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 그리고 전제가 잘못되면 결론은 언제나 오류가 난다. 정확한 원인을 살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국어의 본질을 제대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과학고 학생들의 심리적 저항성이 컸던 ‘문학’의 본질을 제대로 따져봐야 한다. 문학은 인간의 삶을 이해하고 그 속에서 통찰의 지혜를 얻는다. 그렇기에 학생들의 성장과 배움에 있어 반드시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몇 년 전, 굉장히 흥미로운 기사가 실린 것을 우연히 보게 되었다. 세계 수학협회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인류 역사상, 20세기에 이르기까지 가장 위대한 수학 공식의 순위를 뽑은 내용이었다. 당연히 제록만

보고 내가 짐작한 1위는 ‘피타고라스의 정리’였다. 시간상의 차이는 있었지만, 동양과 서양에서 모두 생각하기도 했거니와 무리수의 개념과 이 증명을 바탕으로 추후 삼각함수까지 발전하기 때문이다. 삼각함수는 현재의 스마트폰에서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현대 문명의 기반이 되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이다. 그런데 1위를 차지한 수학 공식은 너무 간단한 것이라 의외였다. 그것은 바로 ‘ $1+1=2$ ’이다. 너무나 간단하지만, 수학의 세계를 설명하는 가장 확실한 언어적 진술이 아닐까. 과학고 학생들의 사고체계도 이와 다르지 않다. 심플하면서도 논리적 허점이 없는 명확함, 직관적 세계를 조망할 수 있는 나선형 구조의 조직성. 이런 사고체계에 놓인 학생들은 ‘모호함’으로 가득찬 문학의 세계는 온통 의문 투성이일 수밖에 없다. 수학은 과학을 설명하는 언어라고 했던가. 수학과 과학의 세계는 미시와 거시의 세계관을 지니게 된다. 반면 문학은 인간의 삶을 조망하고 그 속에 투영된 가치를 읽어낸다. 문학은 한 마디로 정의 내리기가 힘들다. 수학적 공식으로 설명하자면 ‘ $1+1=100$ ’이 되기도 하고, ‘ $1+1=-100$ ’이 되기도 한다. 심지어 ‘ $1+1=0$ ’이 되면 본전치기는 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면 학생들은 머리 위로 거대한 물음표를 띄운다. 좀 더 친절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문학의 주요 관심 대상인 인간과 인간 관계로 대체하여 설명한다. 가까운 예로 친구 관계를 들어 친구와의 우정은 반드시 내가 준 만큼 되돌아오지 않는다는 점과 뒤통수를 맞기도 한다는 점에서 인간관계의 수학 공식을 설명한다. 이쯤되면 학생들은 문학이 가지는 주요 관심이 ‘인간’임을 이해하게 된다. 인간의 세계는 명확성과 수학적 논리성으로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하지만 각 개인이 지니는 가치와 인간 본성에 대한 통찰은 수학적 사고체계를 지닐수록 좀 더 분명한 지혜를 갖출 수 있는 도구를 지니게 되는 셈이다. 설핏 모호해 보이지만

그 모호함이 던지는 무수한 질문들에 답을 하다 보면 인간과 인간, 그리고 세계는 거대한 연결고리를 지니고 있음을 알게 된다.

문학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문학을 배우면서 그 답답했던 경험은 소중한 자산이 되어 돌아온다. 불행히도 나의 학창 시절 내내 아무도 문학이 지니고 있는 모호함의 논리성과 직관을 뛰어넘는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 그 속에 담긴 각 개인이 지니고 있는 우주의 아름다움을 설명해주는 교사는 없었다.

문학이 지닌 아름다움의 근원은 그 속에 담긴 사람들의 삶을 하나로 규정할 수 없는 모호함이 지닌 아름다움이다. ‘모호함’이 비논리적이고 불합리한 것으로 치부하는 것은 일종의 오해이다. 그리고 인간 본성을 ‘모호함’으로만 치부하는 것은 편견이 아닐 수 없다.

학생들에게 들려줄 이야깃거리가 많다. 과학고 학생들은 아마도 대체로 미시의 세계와 거시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리라. 그렇게 삶에 매몰되다보면 자칫 스스로가 인감임을, 인간의 삶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수만큼 많은 우주가 펼쳐지고 있고, 그 우주들이 품은 소중한 보듬살이들이 있음을 잊게 될 것이다. 그럴 때마다,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삶 속에서 중요한 무언가를 놓치지 않도록 그 힘을 키워나가게 도움을 주는 교사이고 싶다. 그러한 힘을 문학 속에서 학생들과 함께 배우고 성장하고 싶다.

2021 인문학 도서 집필위원 공모 당선작

8인의 두드림

28년생, 18년생

활천중학교 허채란



28년생, 18년생

활천중학교 허채란

엄마가 할머니를 모시게 되었다. 길게는 아니고 아흔이 넘은 할머니가 요양원에 가시기 전에 한 달 정도만 그렇게 되었다. 오랜만에 뵈 할머니의 눈은 뿌옇고 번들거렸다. 앞에 앉은 사람도 알아보지 못하고 “누고?” 하고 물었다. “할매, 내다. 할매 손녀.”라고 말하지만 할머니는 듣자마자 곧 잊어버렸다. 그리곤 또 물어본다. “앞에 누고?” 보이지 않는 눈은 자꾸만 할머니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 같다. 누군가가 앞을 지나다니는 것이 느껴질 때마다 누구냐고 묻는다. 할머니의 낮은 항상 밤이다. 그래서 낮에 본 나에게 아직도 안 자고 자신의 화장실을 챙겨봐 주어 고맙다고 말한다.

할머니의 몸집은 나보다 작다. 팔다리는 앙상해서 뼈에 가죽만 겨우 붙어있다. 저 다리도 젊은 시절에는 단단하게 땅을 밟고 섰겠지. 할머니의 빛나던 시절을 짐작하기 어렵다. 관절들은 이제 제 기능을 다해

거의 움직이지 못한다. 자신이 머무는 방 맞은편의 화장실에 갈 때에도 뻣뻣한 관절들이 한 걸음을 제대로 떼기 어렵게 한다. 손으로 피부를 쓸어보면 물기라곤 하나도 없이 꺼슬하다. 자주 감지 못해 짧게 잘린 머리털은 아무런 윤기도 없이 퍼석하게 자라나 있다.

할머니의 생은 꺼져가고 있다. 초등학생보다 작은 그녀의 몸은 바닥에 깔린 요의 한구석밖에 차지하지 않는다. 하루 온종일 이불을 덮은 채 웅크리고 있는 할머니의 몸은 너무 작아서 이불 속에 파묻혀 있는 것처럼 보인다. 저 커다란 이불 뭉치가 무덤처럼 느껴진다. 한번은 뭉쳐져 있는 이불밖에 보이지 않아 할머니가 없어졌다고 착각한 적도 있었다. 숨을 쉴 때마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가슴의 움직임도 잘 보이지 않는다. 초점을 잃은 회색 빛의 눈은 잘 때에도 뜨고 있어 자는 것인지 깨어있는 것인지 구분이 되질 않는다. 할머니의 몸은 끊임없이 작아지고 있다. 생의 흔적이 점점 떨어져 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머니는 밥그릇을 싹싹 비운다. 밥을 다 먹고 난 뒤에는 달달한 커피까지 한 잔 마신다. 온 방에 끈적한 믹스 커피를 쏟으면서도 끝까지 다 드시고야 만다. 밤에 잠을 안 자고 자꾸 일어나서 커피 대신 유자차를 드렸더니 이렇게 달고 맛있는 것도 있냐고 좋아하셨다. 어제는 밤 열 한시에 저녁을 한 번 더 먹었다. 저녁을 안 먹었다고 먹어야 주무시겠다는데 우리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엄마가 출근한 아빠 대신 할머니를 돌보느라 며칠 만에 눈이 움푹 꺼졌다.

내 아이에게는 증조할머니가 된다. 28년생 할머니와 18년생 아기. 두터운 요 위에 나란히 앉아 티비를 보는 모습을 사진으로 남겼다. 28년생 할머니는 티비에서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도 모르고 멍하게 앉아 있고, 18년생 아기는 자기가 좋아하는 뽀로로가 나오자 좋아서 헤벌레 입을 벌린다. 아기에게 과자를 주자 쯤!(증조할머니라는 뜻)이라고 외

치면서 할머니와 나눠 먹는다. 둘의 모습을 보고 있으니 어쩐지 웃음이 났다.

생각해 보면 노인과 아기는 정말 비슷하다. 아기로 태어나서 성인으로 살다가 다시 아기가 된다. 할머니는 성인용 기저귀를 차고 있고, 아기는 하기스 기저귀를 차고 있다. 노인과 아기 모두 걷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 누군가가 손을 잡아줘야 한다. 밥도 혼자 먹을 수 없다. 떠먹여 줘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굶이며 반찬이며 다 흘려서 남아나질 않는다. 머리도 감겨줘야 하고 세수도 시켜줘야 한다. 노인과 아기 모두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사람이 죽을 때가 다가오면 태어났던 모습대로 아기가 되는 걸까.

아기의 웃음은 싱그러운 초록잎처럼 물기를 가득 머금고 있다. 하지만 노인은 고목처럼 메말라 간다. 아기는 넘치는 생명력을 온몸으로 내뿜고 있지만 노인은 타고 남은 숯덩이처럼 꺼져간다. 혼자 힘으로 걸을 수도 없는 노인에게 앞으로의 삶이란 이불 속에 누워있는 지리한 시간들이다. 단지 누워서 어떤 때를 기다릴 뿐이다. 그때까지 삶의 방향을 설계할 수도 없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기도 어렵다. 늙어간다는 것은 서글프다. 혼자 힘으로 대소변조차 가릴 수 없다는 사실은, 너무 비참하다. 노인이 되어서도 아기처럼 반짝반짝 빛날 수 있다면.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삶의 목적과 의미를 새길 수 있는 삶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아기를, 엄마는 할머니를 키운다.

죽고 싶던 날이 지나가고

<1>

아파트 베란다에서 멍하니 아래를 내려다보던 때가 있었다. 마음을 할퀴고 간 상처들이 잊히지 않아서, 앞으로 다가올 일들이 나를 숨막히게 해서 하늘과 맞닿은 창틀만 움켜쥐고 있던 날들이 있었다. 한참을 그러고 있다보면 저 멀리 아래에 있던 땅이 점점 솟구쳐 올라오는 착각이 들었다. 까마득히 멀게 느껴지던 바닥이 생각보다 멀지 않다는 느낌이 들어서 어쩐지 떨어져도 별로 아프지 않을 것 같았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내가 파묻힌 이 구덩이에서 끄집어내어 살게 해줄 사람도 없으니 나는, 도망치는 것 외에는 달리 어찌할 수가 없었다.

어떤 날은 샤워를 하다가도 왈각 눈물이 쏟아졌고, 또 어떤 날은 텅텅 떨면서 핸드폰 충전기 줄을 손에 쥐어보기도 했다. 끝을 알 수 없는 터널 속에 갇힌 기분이 들어서 도대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냐고, 언제쯤 이 시기가 끝나고 괜찮아지는 거냐고 원망 섞인 말을 내뱉기도 했다.

그렇게 몸부림치던 하루가 지나고, 또 지났다. 시간이 흐르고 그저 견디기만 하던 날이 어느샌가 한 움큼 지나갔다. 그러나 문득 마음이

놓이는 날이 있었다. 특별한 날은 아니었다. 어제와 다르지 않은 일요일 오후의 한낮이었다. 그날, 그 순간 멧힌 것 같던 마음이 스르륵 하고 풀어졌다. 왜 그랬는지는 지금도 잘 모르겠다. 그냥 식탁에 앉아 차 한잔을 마시면서 멧하니 밖을 내다볼 뿐이었는데 신경을 팽팽하게 당기던 줄이 느슨해지는 날이었다.

그때 생각했다. 인생 참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마음먹은 대로 인생이 흘러갈 것이라고 생각하다니 내가 삶의 무게를 너무 가볍게 봤구나. 노력하지 않아서 그런 거라고 타인의 삶을 멋대로 판단한 내가 정말 오만했구나. 삶이란 내가 원하는 원하지 않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고, 그것을 담담히 견디고 받아들이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구나.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몰라도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그제서야 알았다.

그날부터 나는 내 팔을 베고 기대 어린 눈빛을 한 내 아이에게 나직한 목소리로 책을 읽어주는 순간을 사랑하게 되었다. 아이의 목덜미에 얼굴을 묻고 끈적한 땀냄새를 맡을 때 작은 평화와 위안을 느꼈다. 때때로 눈을 감고 나를 둘러싼 햇살의 따뜻함을 느끼거나,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에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는 순간도 생겼다. 유독 마음이 힘든 날에도 멀쩡이 떨어져서 나를 토닥토닥 안아주는 여유도 생겼다. 햇살 가득한 창가 아래 소파에서 뒹굴거리며 웃고 있는 아이와 눈을 맞추면 가슴 한켠이 간질거렸다.

이미 받은 상처나 실수가 없던 일이 되진 않았다. 그때의 과거를 다시 되돌릴 수도 없다. 이미 끝난 일을 놓지 못하고 내내 붙잡고만 있다가는 오늘의 하루가 또 불행한 과거로 남게 된다. 이 사실을 마음으로 이해하는데 몇 년이 걸렸다. 도저히 인정할 수 없어서,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머릿속으로만 그때의 상처를 헤집고 또 헤집었다. 마음이 너털너털해질 때까지 스스로를 못살게 굴었다.

긴 터널을 혼자 터덜터덜 걸었다. 스스로 가두었던 그곳에서 억지로 발을 떼면서 한 걸음씩 나아갔다. 한참을 걷다보니 어느 순간 조금씩 빛이 새어들었다. 아니 항상 빛이 곁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나만 보지 못하고 있었다. 그걸 깨닫자마자 내 곁에서 같이 걷고 있던 가족들과 친구들, 잡아달라고 손을 내민 학생들이 보였다. 항상 같이 있었으나 보이지 않았던 그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가렸던 안개가 서서히 걷히고 있었다.

〈2〉

민서와는 몇 년 전 글쓰기 수업에서 만났다. 수업 시간에 크게 눈에 띄는 학생은 아니었지만, 교실에 들어올 때마다 어딘가 모르게 어두운 표정은 썩 정이 가지 않았다. 눈을 다 가릴 정도로 길게 내려온 앞머리,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모를 무표정한 얼굴, 성의없는 대답이 그 아이의 첫인상이었다.

이제 갓 고등학생이 되었으면서 세상을 다 살아낸 듯한 그 아이의 태도는 어딘가 모르게 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 다른 아이들은 저마다의 이야기를 쏟아내기에 바쁘고, 선생님이 던진 말 한마디에 툭툭 튀어 오르면서 자기 색깔을 드러내는데 민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굳이 색깔로 말하자면 우울한 회색의 느낌이 드는 아이였다. 그래서 글쓰기 수업에서 그 아이를 마주했을 때 나는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았다. 어차피 시간만 때우다가 교실로 돌아갈 것이고 글쓰기를 좋아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성급하게 생각했다.

몇 번의 글쓰기 시간이 지나갔을까. 그날의 수업 주제는 '가장 상처받

있던 경험'이었다. 아직 어린 아이들이지만 그 나이에서 겪고 있는 상처를 끄꽂대지 않고 털어놓게 하고 싶었다. 글로써 스스로를 치유하는 경험을 하게 해주고 싶었다. 처음에는 다들 “선생님, 저는 상처가 없는데요.”, “쓰기 싫어요. 한 장을 꼭 다 써야해요?” 저마다 불만이 가득한 목소리로 투덜거렸다. 속으로 '그래, 너희들이 무슨 큰 상처가 있겠니' 싶었다. 가볍게 써도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무 심각하게 생각했나 싶어서 피식 웃음이 났다. 하지만 투덜거리던 아이들은 어느샌가 하고 싶은 말로 종이를 가득 채워나갔다. 사각거리는 소리로만 가득한 2시간이 지나고 놀랍게도 제일 먼저 글을 써 낸 사람은 민서였다. 그것도 한 면을 다 채우고 뒷장까지 넘어갈 만큼 짝 채운 글이었다. 의외다 싶어 찬찬히 읽어보았다. 민서의 글은 엄마에게서 받은 상처로 채워져 있었다. 민서의 엄마는 술을 자주 마셨고, 종종 기억을 못 할 정도로 아주 많이 마셨다. 집에 가면 널부러진 술병과 취한 엄마가 민서를 맞이하곤 했다. 그리고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신 그날은 민서에게 가장 아픈 날이었다. 기억나는 건 술에 취해 흐트러진 얼굴, 붉게 충혈된 눈, 자신을 향한 원망 섞인 목소리. 평소에도 늘 오빠와 비교당하면서 주눅 들어있던 민서에게 엄마는 그날따라 더 맵게 말을 던졌다.

“너만 없었으면 네 오빠랑 둘이 살 수 있었을 텐데.”

세상에 존재하는 것마저 부정하는 엄마의 말은 잊히지 않는 상처가 되어 박혔다. 민서의 마음은 까맣게 멍이 들었다. 민서는 그날 가출을 했다. 폰과 지갑만 챙기고서 밤거리로 뛰쳐나갔다고 한다. 아직 학생인 아이가 밤 12시가 다 된 시간에 갈 곳은 딱히 없다. 동네를 헤매다가 놀이터 그네에 멍하니 앉아있을 뿐이었다. 시간이 지나도 갈 곳이 없던 민서는 막막한 마음에 결국 집으로 터벅터벅 걸어갔다. 갈 곳이 없어 나를 반기지 않는 그 집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아이의 마음은 어땠을

까. 문고리를 잡는 민서의 손에는 무수히 많은 망설임의 순간이 있었을 것이다. 굳게 닫힌 철문 앞에서 민서의 눈동자는 불안으로 잘게 흔들렸을 것이다. 글을 읽어나가는 동안 나도 함께 그 문 앞에서 있었다. 나를 거부하는 철문은 숨이 막힐 것 같았다. 내가 없었기를 바랐다는 사실은 삶을 지탱해야 할 이유도 앗아가는 느낌이었다. 민서가 문을 열고 현관을 들어서자 술에 취해 자고있는 엄마가 보였다. 엄마는 다음날도, 그 다음날에도 민서가 집을 나갔었다는 사실을 몰랐다.

내가 태어나기를 바라지 않았던 엄마. 집을 나가도 그 사실조차 모르는 엄마. 엄마의 원망이 되어버린 나. 아직 다 자라지도 못한 민서에게 어떤 삶의 기쁨이 있어서 웃을 수 있었을까. 자신의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현실에서 학교 수업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사람마다 저마다의 이야기가 있고, 상처가 있다고 누누이 말해 왔으면서도 어린 학생의 삶의 궤적 따위는 보려고 하지 않았다. 글을 쓰는 시간이 없었다면 나는 민서의 이야기를 알려고도 하지 않았겠지. 무관심한 선생님에게 자기의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이야기를 털어놓을 곳이 필요하다고 외치는 느낌이었다.

민서가 담담하게 써 내려간 글을 읽고 나는 목이 잠겼다. 괜히 뼈뚜름하게 보던 내 시선이 부끄럽고 미안해서 얼굴이 달아올랐다. 그때 알았다. 민서도 지금 터널을 지나는 중이구나. 나의 그때처럼 가장 힘든 시간을 겪고 있구나.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서 혼자 버티고 버티는 중이구나. 어떤 말이든 해주고 싶은데 쉽게 말을 꺼낼 수가 없어 입만 달싹거렸다.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말로 전할 수 없어 글로 남겼다.

“민서야, 네가 가장 힘든 시간이었을 그 상처를 글로 적어줘서 고마워. 많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을 텐데 이렇게 글로 이야기해 줘서 선생님은 정말 대견하게 느낀다. 그날 많이 힘들었지? 글을 읽으면서 너

무 마음이 아파서 선생님도 눈물이 났어. 선생님이 민서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엄마가 비록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네가 그 말에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야. 너는 존재 자체로 소중한 사람이고 빛나는 사람 이야. 누구도 너의 삶을 부정할 수 없어. 네가 자신을 소중히 여기면서 너를 잘 돌봐주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선생님의 마음을 울격하게 만드는 글을 쓰는 너는 아주 재능이 많은 아이야.”

2021 인문학 도서 집필위원 공모 당선작

8인의 두드림

만든 사람들

- 총괄 **안태환** 경상남도교육청 창의인재과장
- 기획 **김옥진** 경상남도교육청 도서관독서담당 사무관
오영범 경상남도교육청 도서관독서담당 장학사
- 집필 **권성희** 진영중앙초등학교 교사
권혜림 용호초등학교 교사
모회정 대성초등학교 교사
서연숙 통영중앙중학교 교사
성선희 호암초등학교 교사
이민지 월성초등학교 교사
최선우 창원과학고등학교 교사
허채란 활천중학교 교사
- 발행일 2021년 6월
- 발행인 교육감 박중훈
- 발행처 경상남도교육청
- 인쇄 주식회사 다함

2021 인문학 도서 집필위원 공모 당선작

8인의 두드림